

# KERI 경제동향과 전망

## 2024년 1분기

한국경제연구원

# 제 1 장 경제동향

# 1. 경제성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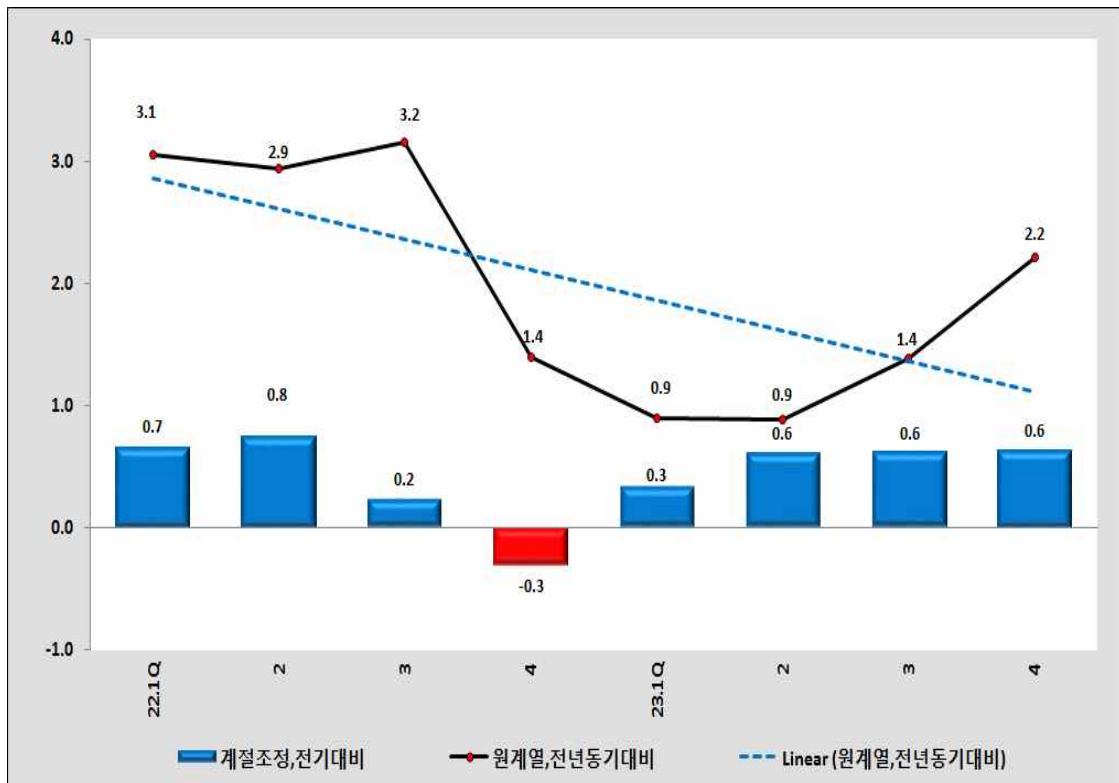
□ 내수부진 지속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 반등에 힘입어 경기회복세 확대  
 (\* 24년 4/4분기, 전년동기비 2.2%, 전기대비 0.6%)

— 2023년 4/4분기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은 2.2%, 전기 대비 성장률은 0.6%로 경기회복이 완만하게 진행

- 전기비 : 0.7%(2022 1/4)→ 0.8%(2022 2/4)→ 0.2%(2022 3/4)→ -0.3%(2022 4/4)→ 0.3%(2023 1/4)→ 0.6%(2023 2/4)→ 0.6%(2023 3/4)→ **0.6%(2023 4/4)**
- 동기비 : 3.1%(2022 1/4)→ 2.9%(2022 2/4)→ 3.2%(2022 3/4)→ 1.4%(2022 4/4)→ 0.9%(2023 1/4)→ 0.9%(2023 2/4)→ 0.6%(2023 3/4)→ **2.2%(2023 4/4)**

<그림 1-1> 실질GDP 증가율 추이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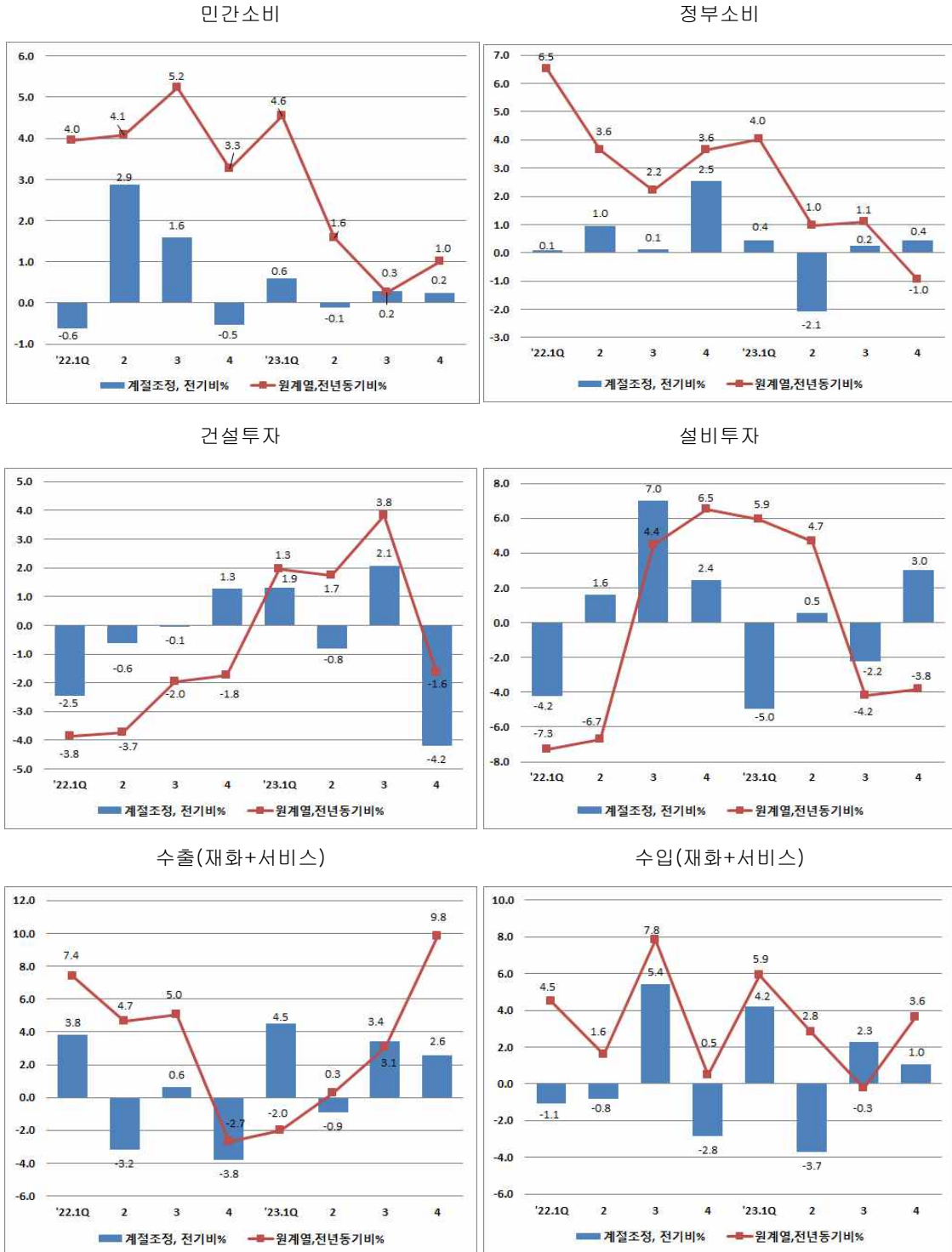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

□ (최종수요)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은 증가세가 확대

- 민간소비는 양호한 고용여건에도 불구하고 고물가로 인한 실질구매력 약화와 고금리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의 영향으로 약세흐름 지속
- 건설투자는 저조했던 착공실적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가시화되면서 큰 폭으로 감소
- 설비투자는 반도체 관련 투자 개선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회복의 지연과 불확실성의 확대, 자본조달 비용 상승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면서 부진한 흐름 지속
- 수출은 중국을 등 주요국들의 경기회복세가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 증가와 자동차 수출호조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확대

<그림 1-2> 주요 최종수요 항목별 증가율 추이

(단위: %)



자료: 한국은행

□ 12월 산업생산은 반도체 부문 개선에 따라 생산(0.3%)과 설비투자(5.5%)는 증가한 반면 소비(-0.8%)와 건설투자(-2.7)는 감소

— (생산) 전산업생산은 광공업(0.6%)의 회복에 힘입어 전월비 0.3% 증가. 서비스업은 0.3% 증가

- 전산업생산: (전월비) -1.6%(2022.12월) → 0.0%(2023.1월) → 1.0%(2023.2월) → 1.1%(2023.3월) → 1.3%(2023.4월) → 1.1%(2023.5월) → 0.0%(2023.6월) → -0.8%(2023.7월) → 2.0%(2023.8월) → 1.1%(2023.9월) → -1.8%(2023.10월) → 0.8%(2023.11월) → 0.3%(2023.12월)

-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, 자동차, 기계장비의 증가에 힘입어 0.6% 증가

- ✓ 전체 광공업: (전월비) -2.9%(2022.12월) → 1.9%(2023.1월) → -2.9%(2023.2월) → 4.7%(2023.3월) → -0.7%(2023.4월) → 3.0%(2023.5월) → -1.6%(2023.6월) → -2.0%(2023.7월) → 5.2%(2023.8월) → 1.8%(2023.9월) → -3.9%(2023.10월) → 3.6%(2023.11월) → 0.6%(2023.12월)

- ✓ 주요 증가 업종(전월비): 반도체(8.5%), 자동차(4.7%), 기계장비(6.1%)

- ❖ 제조업 재고는 전월비 4.4%(전년동기비 0.0%) 감소

-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·보험과 운수·창고를 중심으로 전월비 0.3% 증가

- ✓ 전체 서비스업: (전월비) -0.2%(2022.12월) → -0.5%(2023.1월) → 2.1%(2023.2월) → -0.4%(2023.3월) → -0.4%(2023.4월) → -0.3%(2023.5월) → 0.6%(2023.6월) → 0.3%(2023.7월) → 0.3%(2023.8월) → 0.4%(2023.9월) → -0.8%(2023.10월) → 0.0%(2023.11월) → 0.3%(2023.12월)

- ✓ 주요 증가 업종(전월비): 금융·보험(4.9%), 운수·창고(2.5%)

- ✓ 주요 감소 업종(전월비): 협회·수리·개인(-5.8%), 부동산(-3.7%)

— (소비) 소매판매는 내구재(-1.2%), 준내구재(-0.3%), 비내구재(-0.7%)가 모두 감소하면서 0.8% 감소

- 전체소매판매: (전월비) 1.4%(2022.12월) → -1.5%(2023.1월) → 5.1%(2023.2월) → 0.1%(2023.3월) → -2.6%(2023.4월) → 0.4%(2023.5월) → 0.9%(2023.6월) → -3.2%(2023.7월) → -0.3%(2023.8월) → 0.2%(2023.9월) → -0.8%(2023.10월) → 0.9%(2023.11월) → -0.8%(2023.12월)

- ✓ 소매업테별로는 백화점과 면세점의 판매는 증가한 반면,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의 판매는 감소

— (투자)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장비가 포함된 특수산업용기계(8.9%) 증가의 영향으로 전월비 5.5% 증가. 건설투자는 토목(6.8%)에서 늘었으나 건축(-5.6%)에서 줄면서 전월비 2.7% 감소

- 설비투자: (전월비) -7.1%(2022.12월) → -4.8%(2023.1월) → 1.0%(2023.2월) → -2.5%(2023.3월) → 0.8%(2023.4월) → 3.5%(2023.5월) → 0.2%(2023.6월) → -8.9%(2023.7월) → 4.0%(2023.8월) → 8.7%(2023.9월) → -3.8%(2023.10월) → -2.5%(2023.11월) → 5.5%(2023.12월)
- 건설투자: (전월비) -9.5%(2022.12월) → 4.8%(2023.1월) → 3.6%(2023.2월) → -4.2%(2023.3월) → 1.2%(2023.4월) → 1.1%(2023.5월) → -2.2%(2023.6월) → 0.5%(2023.7월) → 3.2%(2023.8월) → 2.5%(2023.9월) → 0.1%(2023.10월) → -3.3%(2023.11월) → -2.7%(2023.12월)

<표 1-1> 주요 산업활동 지표

(단위: 전년동월(기)비 %, 괄호 안의 숫자는 전월(기)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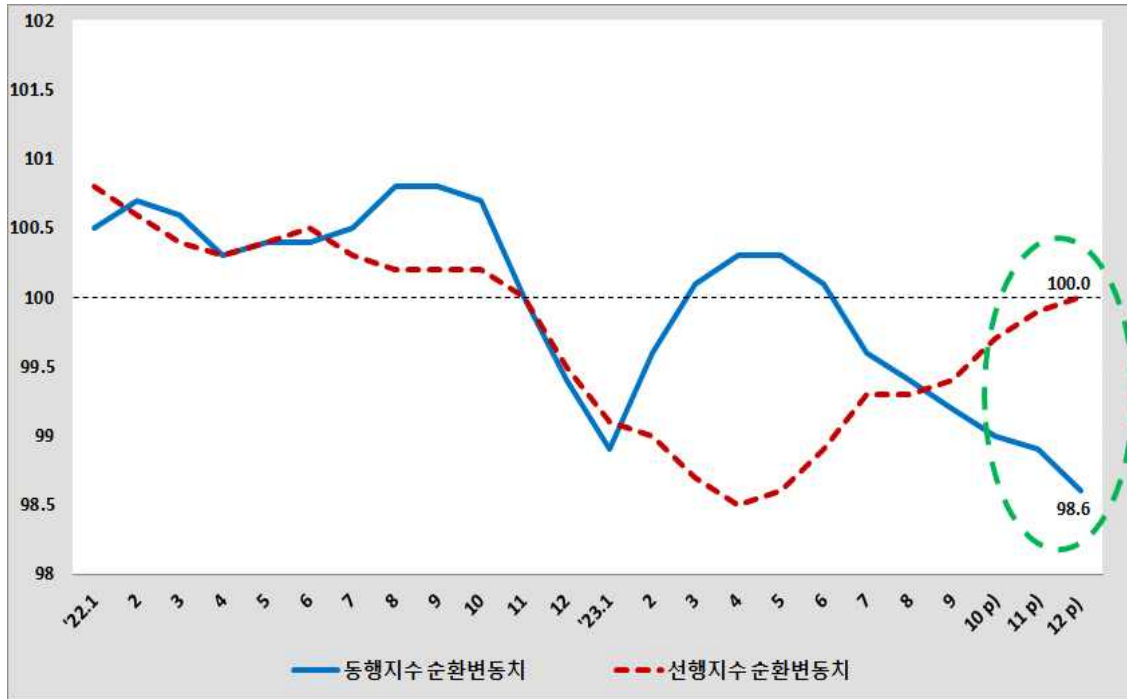
		2022년			2023년		
		연간	4/4	12월	연간	4/4 p)	12월 p)
생산	전산업	4.6	1.9 (-1.4)	0.7 (0.0)	0.7	1.6 (0.2)	1.1 (0.3)
	제조업	1.4	-6.7 (-6.4)	-11.1 (-4.0)	-3.9	4.4 (1.6)	6.7 (0.6)
	서비스업	6.7	5.8 (0.2)	6.6 (1.8)	2.9	1.1 (-0.3)	0.2 (0.3)
	평균가동률	74.8	69.9	68.3	71.3	71.0	70.8
소비	소매판매	-0.3	-2.3 (-1.4)	-3.1 (0.6)	-1.4	-2.4 (-0.5)	-2.2 (-0.8)
투자	설비투자	3.3	9.6 (-0.2)	-6.1 (3.2)	-5.5	-9.2 (3.1)	-5.9 (5.5)
	건설기성	2.7	6.4 (-4.9)	0.4 (-1.9)	7.7	1.3 (-2.0)	-1.2 (-2.7)

자료: 통계청

- (경기) 경기는 하반기를 경과하며 기준치(100)를 하회하는 저조한 흐름을 보여 온 가운데, 12월중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투자 감소로 전월대비 0.1%p 하락,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설비투자 증가로 전월대비 0.4%p 상승

<그림 1-3> 경기종합지수

(지수, p)



자료: 통계청



## 2. 수출입(통관기준)

□ [2023 연간] 무역수지 102억달러 ‘적자’로 2022년(-477억달러) 대비 375억달러 적자폭 감소

— 2023년 수출은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및 반도체(-23.8%), 무선통신(-9.6%), 석유제품(-17.2%) 등 주력 수출품목들의 실적이 크게 줄면서 7.5% 감소

— 2023년 수입은 경기위축에 따라 원자재 수입이 줄면서 12.1% 감소

— 2023년 무역수지 102억달러 적자

- 수출은 6,324억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512억달러 감소
- 수입은 6,426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87억달러 감소
- 무역수지는 적자흐름을 지속해 오다 6월 이후 흑자로 전환

— 주요국들의 통화긴축 장기화로 글로벌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,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중국의 경기회복세 약화의 영향으로 수입시장이 회복하지 못한 것이 2023년 수출입 실적 부진의 주요한 배경

- 지역별로는 대중국 무역 감소,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감소가 무역수지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
- 국제유가와 환율의 변동폭 확대 역시 무역수지 회복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
  - ✓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 지속은 수입물가의 상승 및 수출감소의 원인으로 동시에 작용하면서 무역수지 개선에 악영향
  - ✓ 달러화의 강세가 원화뿐만 아니라 여타의 통화에도 동일하게 작용하여 고환율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제고로 이어지지 못하게 됨에 따라 수출기업에 부담으로 작용

□ [2023년 4분기] 반도체 수출증가에 따라 전체 수출의 부진이 완화되어 96억달러 흑자 기록

— 수출은 1,682억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5.8% 증가

— 수입은 1,586억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10.7% 감소

□ [2024년 1월] 2024년 1월. 반도체 수출의 증가세 확대로 무역수지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연속 흑자

— 수출 547억달러로 전년동기비 18% 증가

- 반도체 수출이 52.8% 증가한 가운데, 승용차(24.8%), 선박(75.8%), 석유제품(12.0%) 등 주력 품목의 수출 증가폭이 확대된 것이 두자릿 수 수출증가율의 주요 원인

— 수입 544억달러로 전년동기비 -7.9%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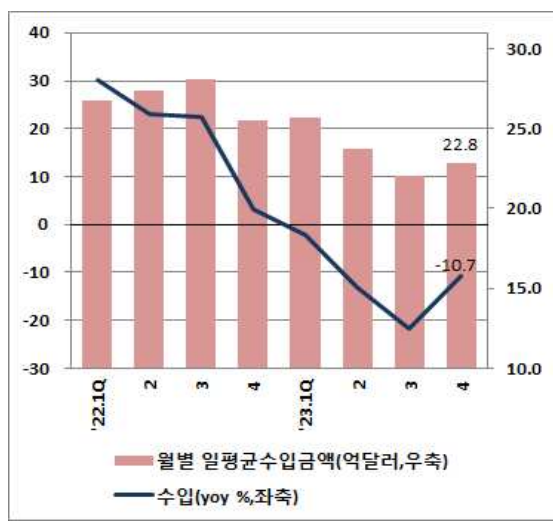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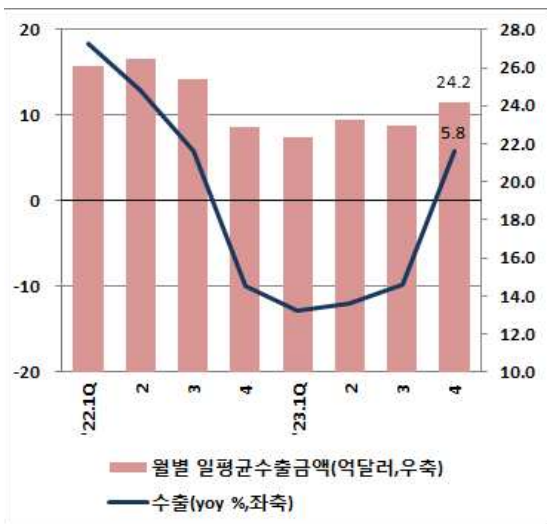
— 무역수지: -126.4억달러(2023년 1월) → -53.6억달러(2월) → -47.0억달러(3월) → -25.1억달러(4월) → -21.9억달러(5월) → +12.0억달러(6월) → +18.2억달러(7월) → +10.1억달러(8월) → +36.9억달러(9월) → +16.3억달러(10월) → +37.8억달러(11월) → +44.5억달러(12월) → +3.3억달러(2024년 1월)

<그림 1-4> 수출증가율 및 일평균 수출액

<그림 1-5> 수입증가율 및 일평균 수입액

(단위: 억달러, 전년동기대비%)

(단위: 억달러, 전년동기대비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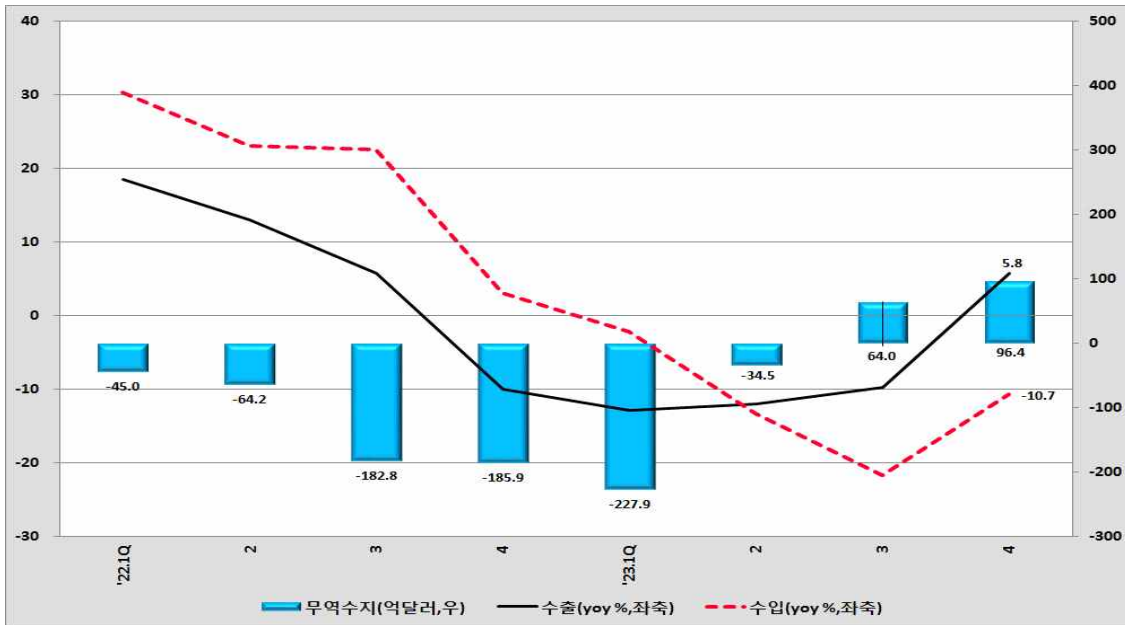
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, 관세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, 관세청

<그림 1-6> 통관기준 무역수지-수출-수입

(단위: 억달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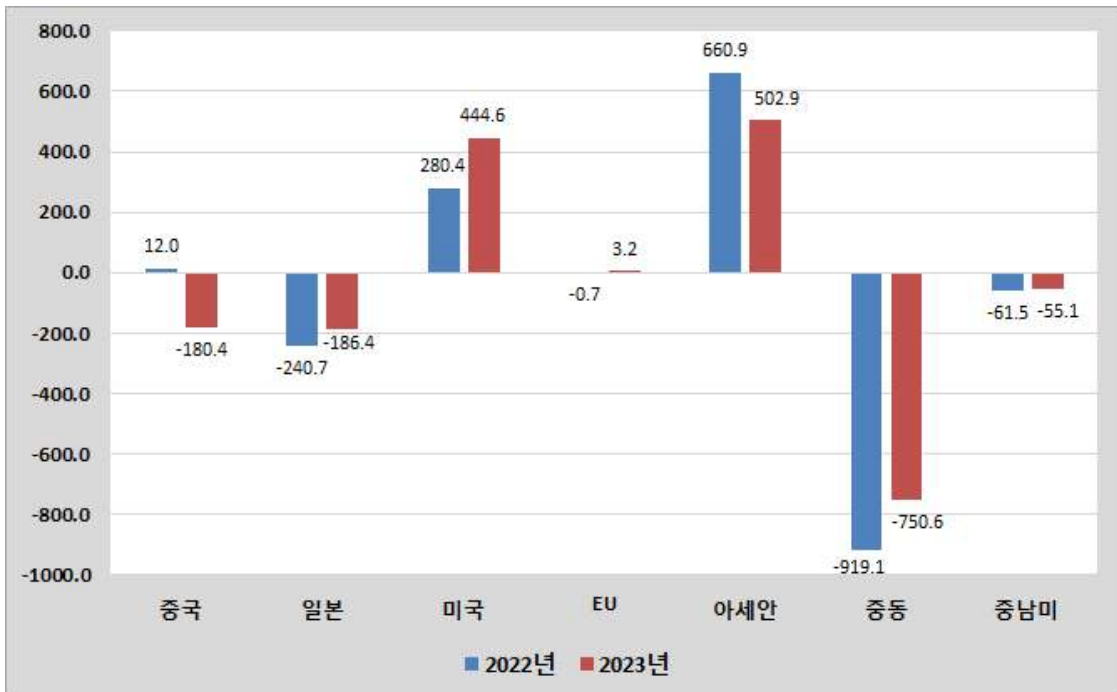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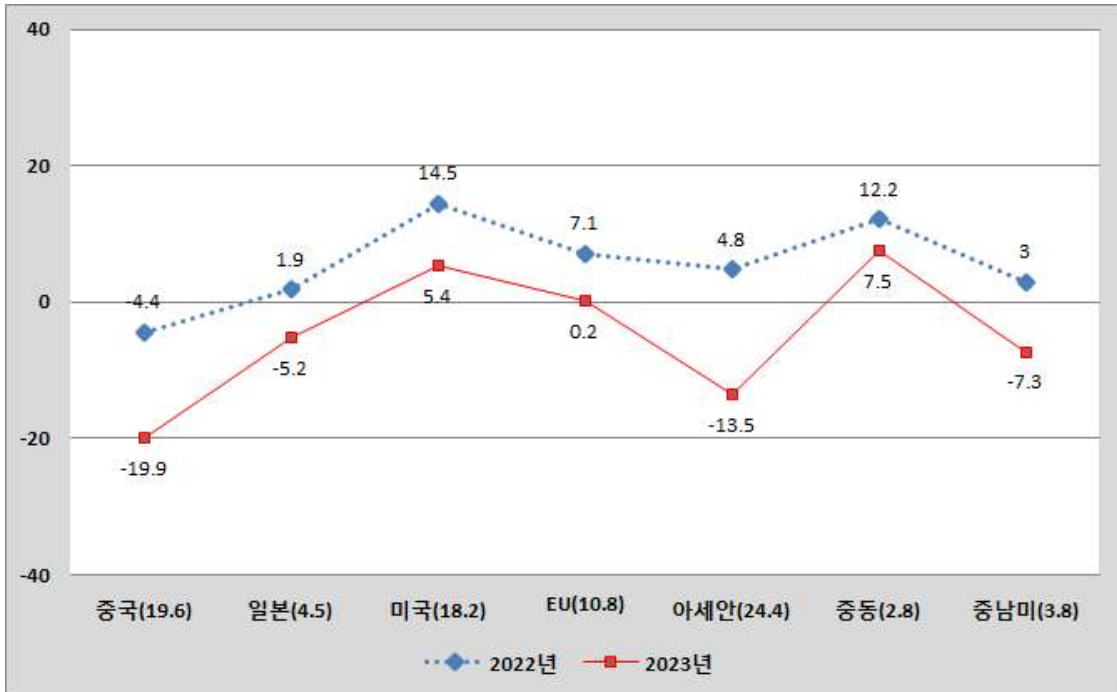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한국은행, 관세청

- (지역별 수출) 2023년 미국 및 EU에 대한 수출은 증가한 반면, 중국, 일본 등에 대한 수출은 감소
  - **미국:** 통화긴축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소비, 고용지표가 현재까지 양호한 실적을 보이며 대미수출은 증가세 지속
    - ✓ 주요 수출증가 품목: 자동차, 석유제품, 무선통신기기
  - **중국:** 중국내 기업구조조정 및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경기부진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對중국 수출이 감소. 특히 반도체는 30% 이상 급감
    - ✓ 주요 수출감소 품목: 반도체, 정밀기기
  - **유로:**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에도 불구하고 승용차와 자동차부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
    - ✓ 주요 수출증가품목: 승용차, 선박
  - **일본:** 대일수출은 엔화약세에 따른 수입부담이 증가 등의 요인으로 수출 감소
    - ✓ 주요 수출감소 품목: 반도체, 무선통신기기
- ◆ 2024년(1월) 들어 미국(27.1%), 유로(5.2%)는 물론, 일본(10.6%), 아세안(24.4%) 등 전지역에 대한 수출이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특히, 대중국 수출도 16%를 기록하며 증가로 전환

<그림 1-7> 주요 지역별 수출증가율(상단) 및 무역수지(하단)

(단위: 전년동기대비 %, 억달러(\$))



자료: 한국무역협회, 통계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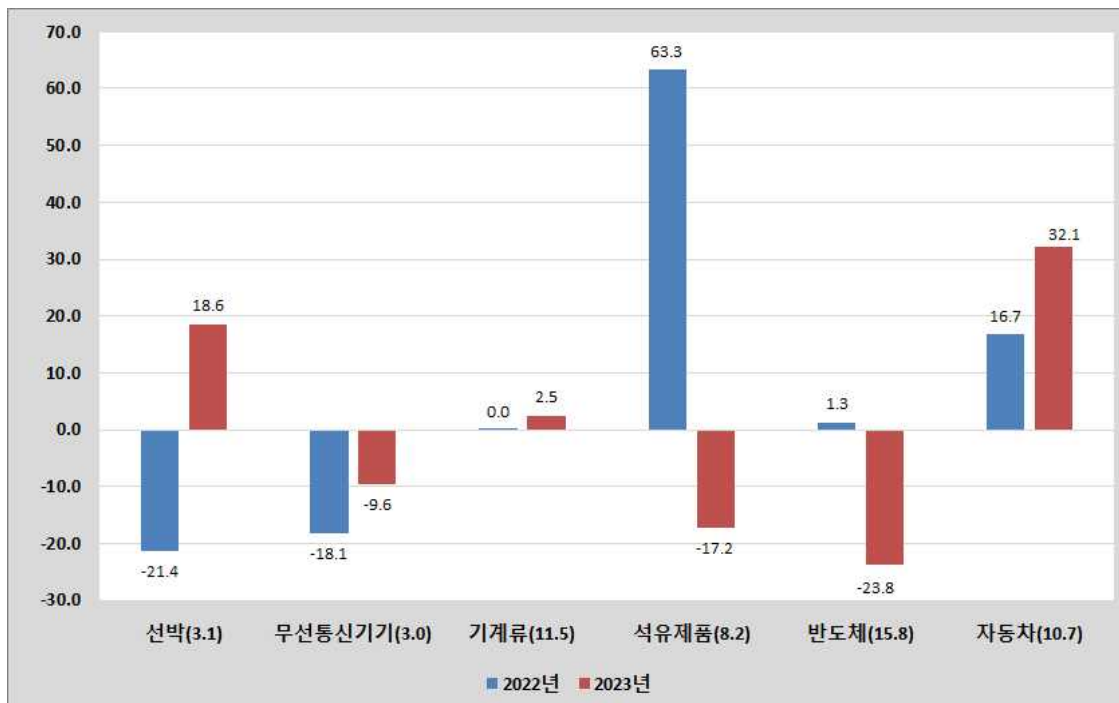
주: ( )내 수치는 2023년 기준 지역별 수출비중

— (품목별 수출) 자동차와 선박 등을 제외한 주력 품목들의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감소

- 반도체: 글로벌 IT 수요 위축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된 수출부진이 올 상반기까지 지속되며 20%가 넘는 감소세를 기록. 다만, 최근 반도체 생산량 조절에 따른 단가회복 및 IT 수요회복에 힘입어 실적이 개선
  - 자동차: SUV 및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확대에 힘입어 주요 시장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역대 최고 실적 기록
  - 선박: 수주한 물량에 대한 인도가 본격화되고 EU 지역 수출 및 LNG선 발주량 증가에 힘입어 증가
  - 일반기계: 중국 내수시장 회복 지연 및 글로벌 제조업 위축에 따라 부진
  - 석유제품: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출단가가 낮아진 가운데 글로벌 산업활동 둔화에 따른 국내생산 감소로 수출물량 감소
- ◆ 2024년(1월) 들어 감소세를 지속해 오던 **반도체와 석유제품의 수출이 각각 52.8%, 12.0%로 크게 증가**한 가운데 기계류(16.9%), 선박(75.8%) 등의 주력 품목 역시 증가세가 확대

<그림 1-8> 주요 품목별 수출증가율

(단위: %)



자료: 한국무역협회

주: ( )내 수치는 2023년 기준 품목별 수출비중

### 3. 고용

□ 고용시장. 2023년 4/4분기, 취업자 2,852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0만명 증가.  
고용률 63.2%, 실업률은 2.3%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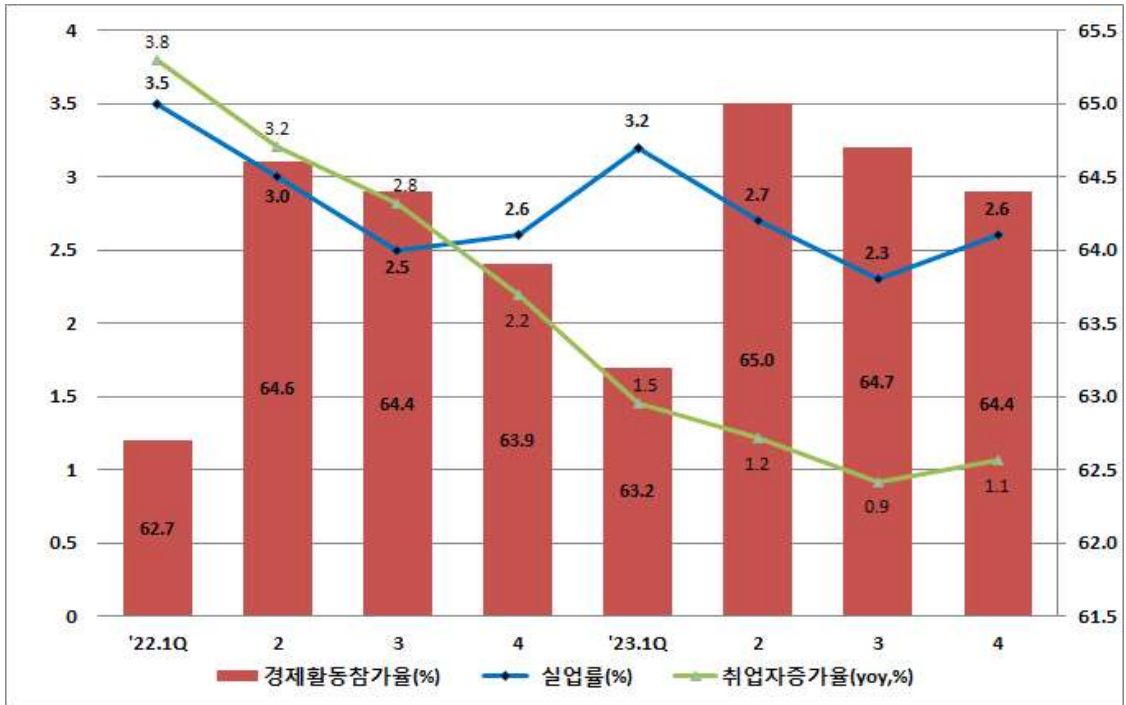
- 고용률(취업자/생산가능인구)은 62.7%로 전년동기 대비 0.4%p 상승
  - 고용률(%): 60.5( '22.1Q)→ 62.7( '22.2Q)→ 62.8( '22.3Q)→ 62.3( '22.4Q)→ 61.2( '23.1Q)→ 63.2( '23.2Q)→ 63.2( '23.3Q)→ 62.7( '23.4Q)
  - 청년층(15~29세) 고용률은 46.2%로 전년동기 대비 0.1%p 상승
- 실업률(실업자/경제활동인구): 실업률은 2.6%로 전년동기 대비 보합
  - 실업률(%): 3.5( '22.1Q)→ 3.0( '22.2Q)→ 2.5( '22.3Q)→ 2.6( '22.4Q)→ 3.2( '23.1Q)→ 2.7( '23.2Q)→ 2.3( '23.3Q)→ 2.6( '23.4Q)
  - 청년층(15~29세) 실업률은 5.3%로 전년동기 대비 0.2%p 하락

□ 전체 취업자는 늘었으나 제조업 취업자 및 20대와 40대 취업자의 감소세가 지속되며 질적인 개선은 미흡한 상황

- 전체 취업자는 증가했으나 제조업 및 부동산업의 취업자는 감소한 반면, 사회복지서비스업 및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취업자수는 증가
  - 산업별로는 사회복지서비스업(+10.3만)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(+7만)은 증가한 반면, 제조업(-2.6만)과 부동산업(-3만)은 감소
  - 연령계층별로는 60대 이상에서 30.2만, 30대에서 8.4만명 증가한 반면, 20대와 40대에서는 각각 5.7만명, 5만명 감소
  -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는 각각 35.6만명, 3.4만명 증가하였으나 일용근로자는 9.5만명 감소

<그림 1-9> 경제활동참가율, 실업률, 취업자증가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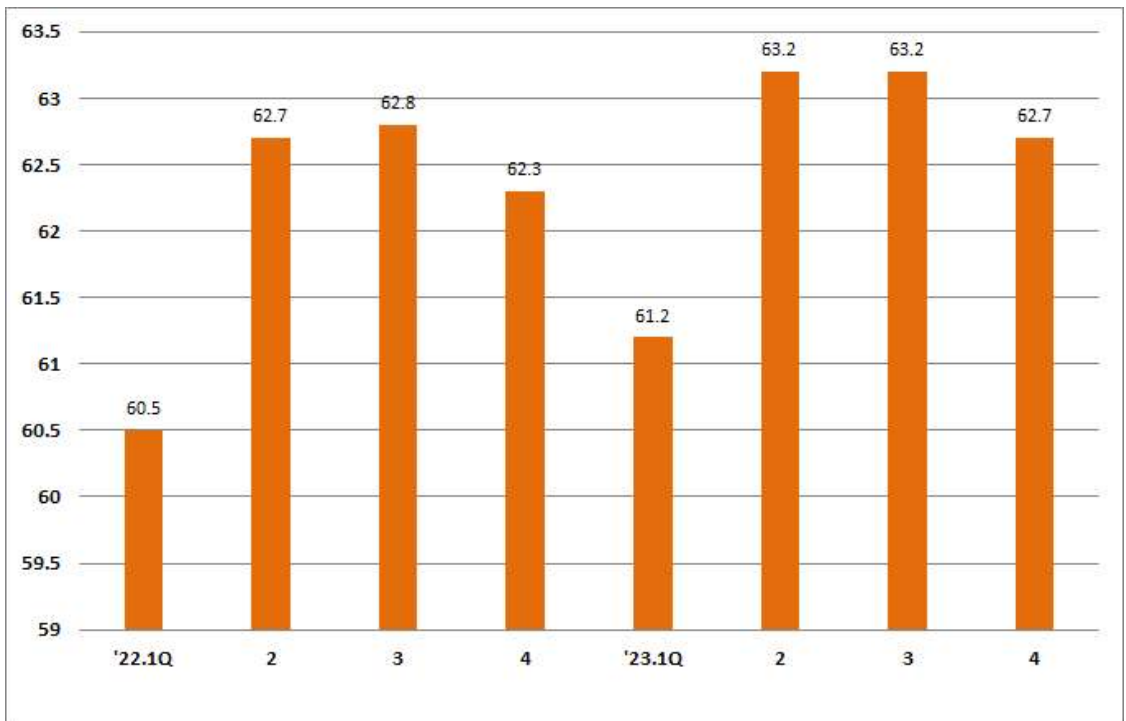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계절조정)



자료: 한국은행

<그림 1-10> 고용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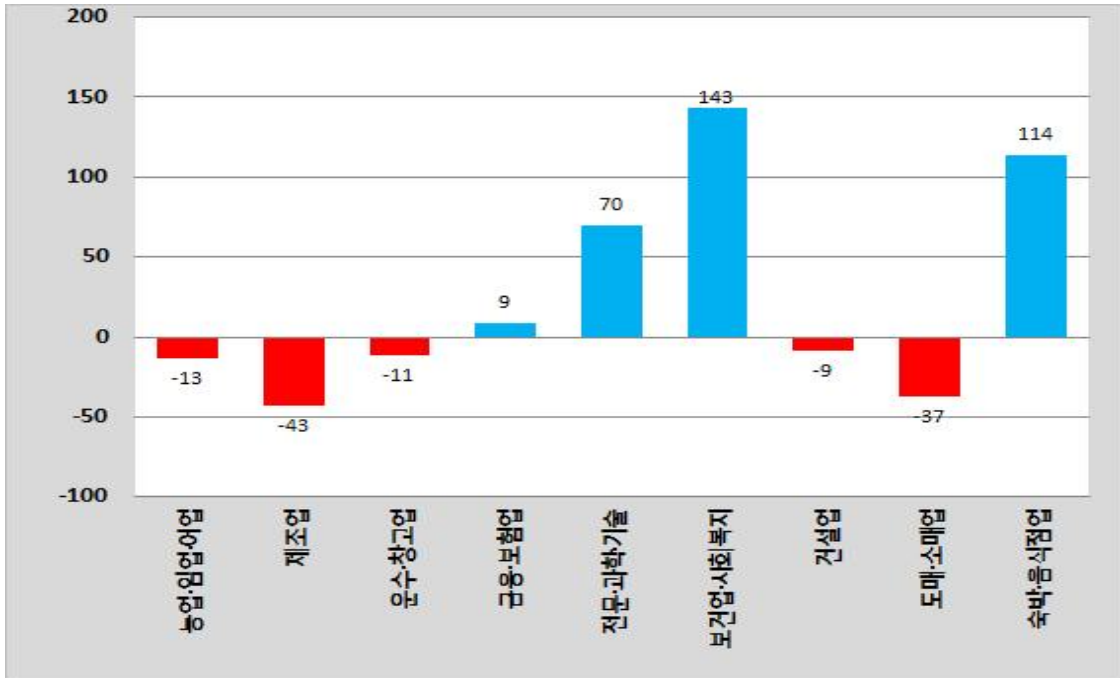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계절조정)



자료: 한국은행

<그림 I -11> 산업별 취업자 증감(2022년 대비 2023년 증감)

(단위: 천명)



자료: 통계청

□ 2024년 1월, 취업자 2,774만명으로 저조했던 전년동기대비 38만명 증가하였으나 고용률 61.0%까지 하락하고 실업률은 3.7%로 오르는 등 노동시장의 활력이 둔화되는 모습

— 고용률(취업자/생산가능인구)은 62.7%로 전년동기대비 0.4%p 상승

- 고용률(%): 60.3( '23.1)→ 61.1( '23.2)→ 62.2( '23.3)→ 62.7( '23.4)→ 63.5( '23.5)→ 63.5( '23.6)→ 63.2( '23.7)→ 63.1( '23.8)→ 63.2( '23.9)→ 63.3( '23.10)→ 63.1( '23.11)→ 61.7( '23.12)→ 61.0( '24.1)
- 청년층(15~29세) 고용률은 46.3%로 전년동기대비 0.2%p 상승

— 실업률(실업자/경제활동인구): 실업률은 2.3%로 전년동기대비 0.1%p 하락

- 실업률(%): 3.6( '23.1)→ 3.1( '23.2)→ 2.9( '23.3)→ 2.8( '23.4)→ 2.7( '23.5)→ 2.7( '23.6)→ 2.7( '23.7)→ 2.0( '23.8)→ 2.3( '23.9)→ 2.1( '23.10)→ 2.3( '23.11)→ 3.3( '23.12)→ 3.7( '24.1)
- 청년층(15~29세) 실업률은 6.0%로 전년동기대비 0.1%p 상승



- 40대 취업자의 감소세는 지속된 반면, 감소세를 지속해 오던 제조업 취업자 (+2만명)는 소폭 증가

## 4. 물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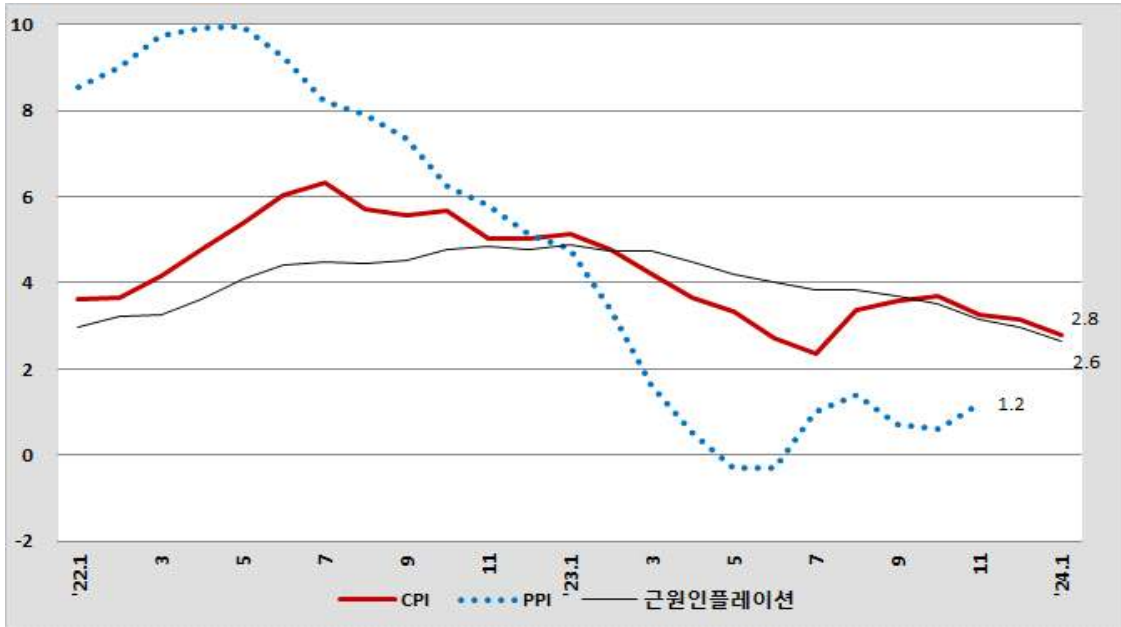
□ 2024년 1월. 전기·수도·가스<sup>1)</sup>와 농축수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물가상승률은 2.8% 기록

- 전기·수도·가스 등 공공요금 및 서비스 가격의 상승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선식품 등 농축수산물이 8% 이상(농산물 +15.4%, 신선과일 +26.1%)가 파른 상승세 지속
- 공업제품과 서비스물가는 각각 1.8%, 2.6%로 안정된 흐름 유지
-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.0%까지 점진적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며, 생활물가지수 역시 전월 대비 0.3%p 하락
  - 기대인플레이션율: 3.9( '23.1)→ 4.0( '23.2)→ 3.9( '23.3)→ 3.7( '23.4)→ 3.5( '23.5)→ 3.5( '23.6)→ 3.3( '23.7)→ 3.3( '23.8)→ 3.3( '23.9)→ 3.4( '23.10)→ 3.4( '22.11)→ 3.2( '22.12)→ 3.0( '24.1)→ 3.0( '24.2)
  - 생활물가지수<sup>1)</sup>(전년동월비): 6.1( '23.1)→ 5.5( '23.2)→ 4.4( '23.3)→ 3.7( '23.4)→ 3.2( '23.5)→ 2.3( '23.6)→ 1.8( '23.7)→ 3.9( '23.8)→ 4.4( '23.9)→ 4.5( '23.10)→ 3.9( '22.11)→ 3.7( '22.12)→ 3.4( '24.1)
- 근원물가지수(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)는 전월 대비 0.3%p 낮은 2.5% 기록

1) 전체 460개 품목 중 구입빈도 및 지출비중이 높은 141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. 전월세 비포함(전월세 포함 생활물가지수는 4.5%)

<그림 1-12> 주요 물가지수 증가율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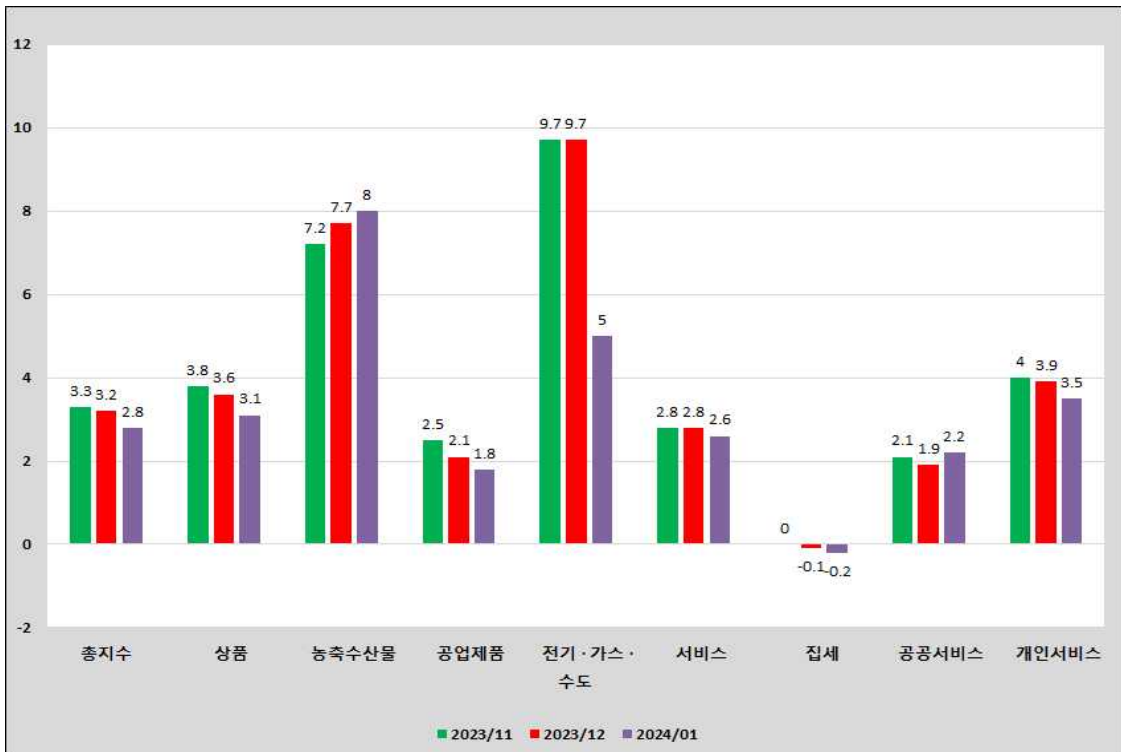
(단위: 전년동기비%)



자료: 한국은행

<그림 1-13> 품목성질별 증가율

(단위: 전년동기비%)



자료: 한국은행

□ 고금리의 영향으로 극심한 위축흐름을 지속해 온 주택가격은 하반기를 경과하며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축소, 다만, 최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약화 및 부동산PF 관련 불안 확산으로 관망세로 전환하는 모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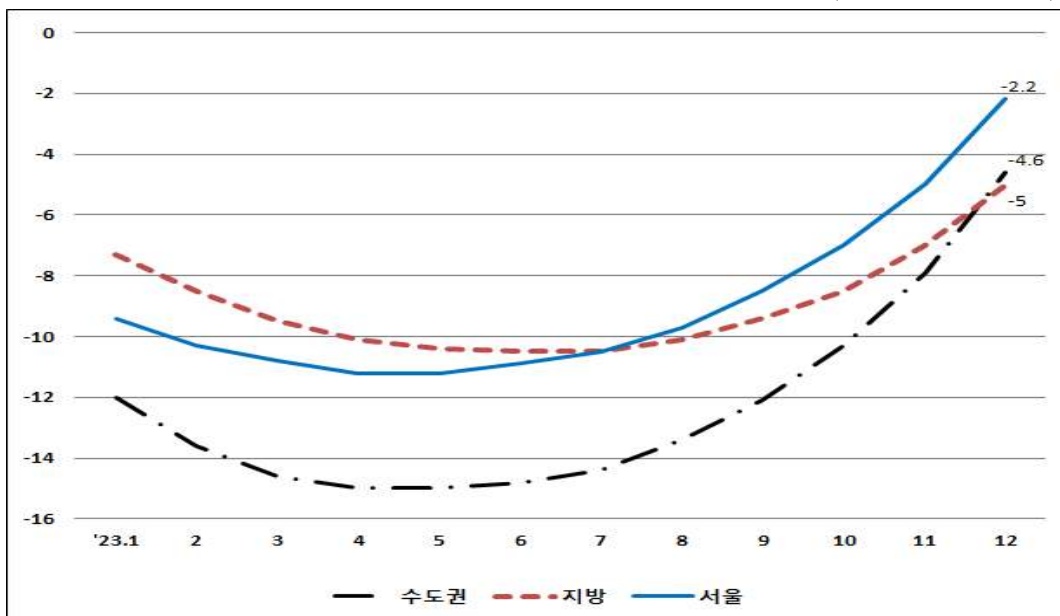
— 아파트(수도권) 매매가격 증가율: -12.0%( 23.1월)→ -13.6%( 23.2월)→ -14.6%( 23.3월)→ -15.0%( 23.4월)→ -15.1%( 23.5월)→ -14.8%( 23.6월)→ -14.4%( 23.7월)→ -13.4%( 23.8월)→ -12.1%( 23.9월)→ -10.3%( 23.10월)→ -7.9%( 23.11월)→ -4.6%( 23.12월)

—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률은 마이너스(-) 두자리 상승률을 유지해 온 가운데 하반기를 경과하며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빠르게 줄어들고 거래량 역시 재개발 지역 및 신규청약을 중심으로 회복해 온 상황

— 다만, 최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고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 재강화 움직임에 따른 정부지원 대출 축소의 영향으로 매매수급지수가 하락하는 등 재위축 흐름을 보이며 관망세로 전환

<그림 I -14>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증가율

(단위: 전년동월비%)



자료: 통계청

<그림 I -15> 서울지역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증가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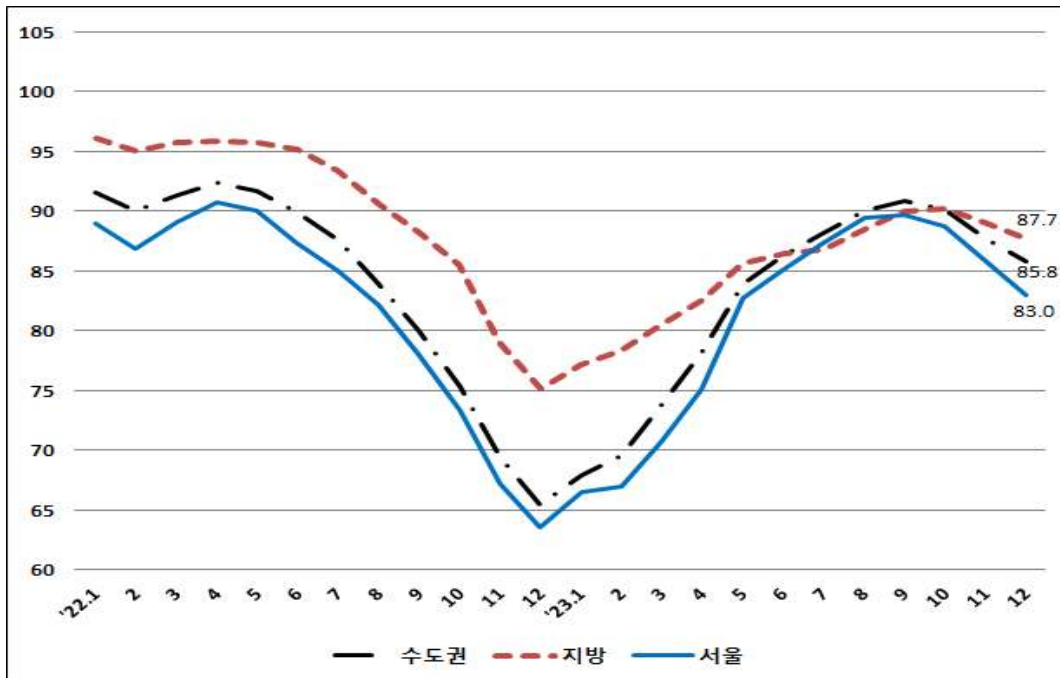
(단위: 전년동월비%)



자료: 통계청

<그림 I -16> 아파트 매매수급지수

(단위: 지수)



자료: 통계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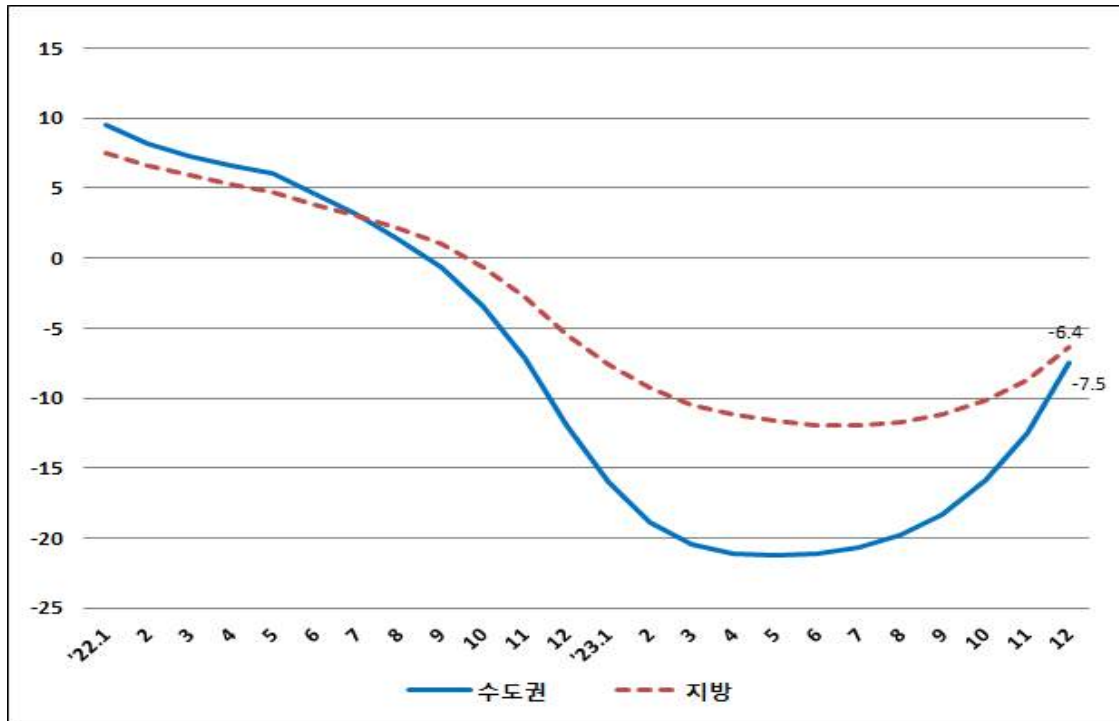
□ 하락세를 지속해 온 전세가격은 매매수요의 전세수요로의 유입으로 최근 들어 회복세가 확대

— 아파트(수도권) 전세가격 증가율: -16.0%( 23.1월)→ -18.8%( 23.2월)→ -20.4%( 23.3월)→ -21.1%( 23.4월)→ -21.2%( 23.5월)→ -21.0%( 23.6월)→ -20.8%( 23.7월)→ -19.8%( 23.8월)→ -18.3%( 23.9월)→ -15.9%( 23.10월)→ -12.5%( 23.11월)→ -7.5%( 23.12월)

— 아파트 전세가격은 매매가격 하락에 동반하여 하락세를 지속해 왔으나, 연초 전세사기 대란의 여파가 점차 소멸하고 매매수요의 일부가 전세수요로 유입되면서 하락폭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

<그림 1-17> 아파트전세가격

(단위: 전년동월비%)



자료: 통계청

## 5. 금리와 환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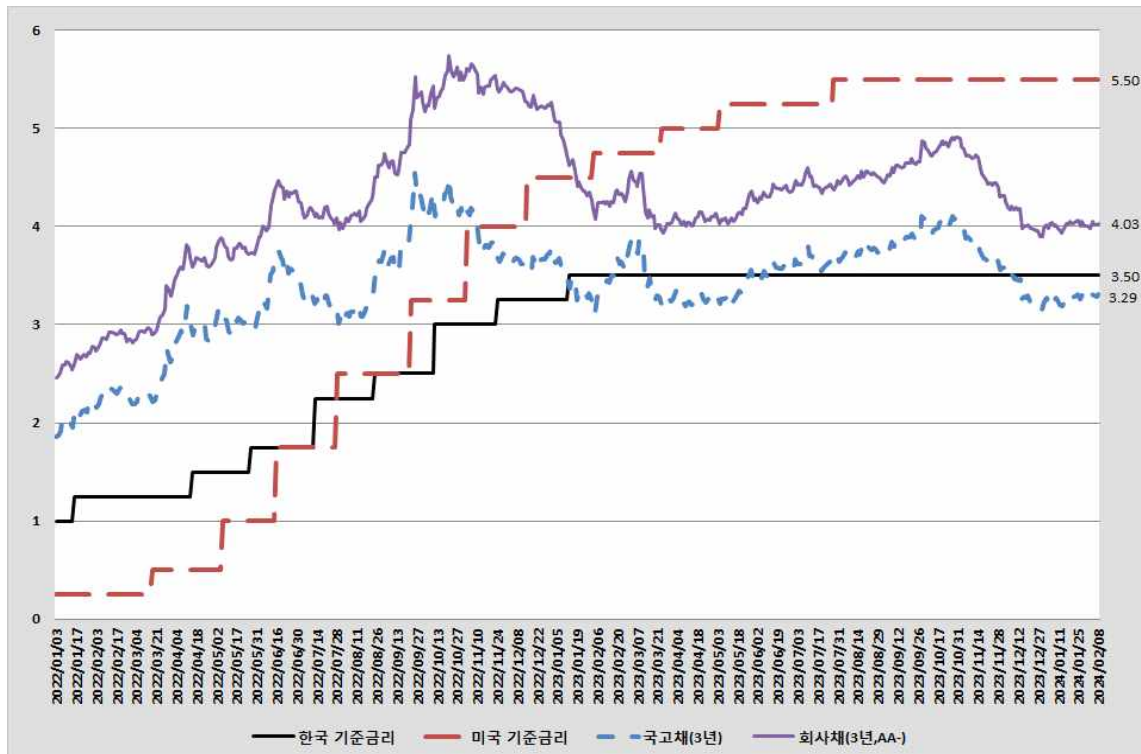
□ 한국은행은 2023년 1월 이후 기준금리를 3.5% 수준에서 동결. 미국 역시 2023년 7월 이후 기준금리를 상단 기준 5.5%로 유지해 온 결과, 금리차는 7개월째 2.0%p를 지속

□ 시장금리는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와 그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5% 가까이 상승했으나 올해 들어 4%대 초반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

— 회사채(3년, AA-): 4.37%(23.2.27) → 3.93%(23.3.24) → 4.08%(23.4.25) → 4.18%(23.5.23) → 4.42%(23.6.23) → 4.41%(23.7.26) → 4.52%(23.8.28) → 4.65%(23.9.26) → 4.88%(23.10.27) → 4.79%(23.11.3) → 4.25%(23.12.4) → 4.05%(24.1.3) → 4.03%(24.2.8)

<그림 1-18> 한·미 기준금리와 한국의 시장금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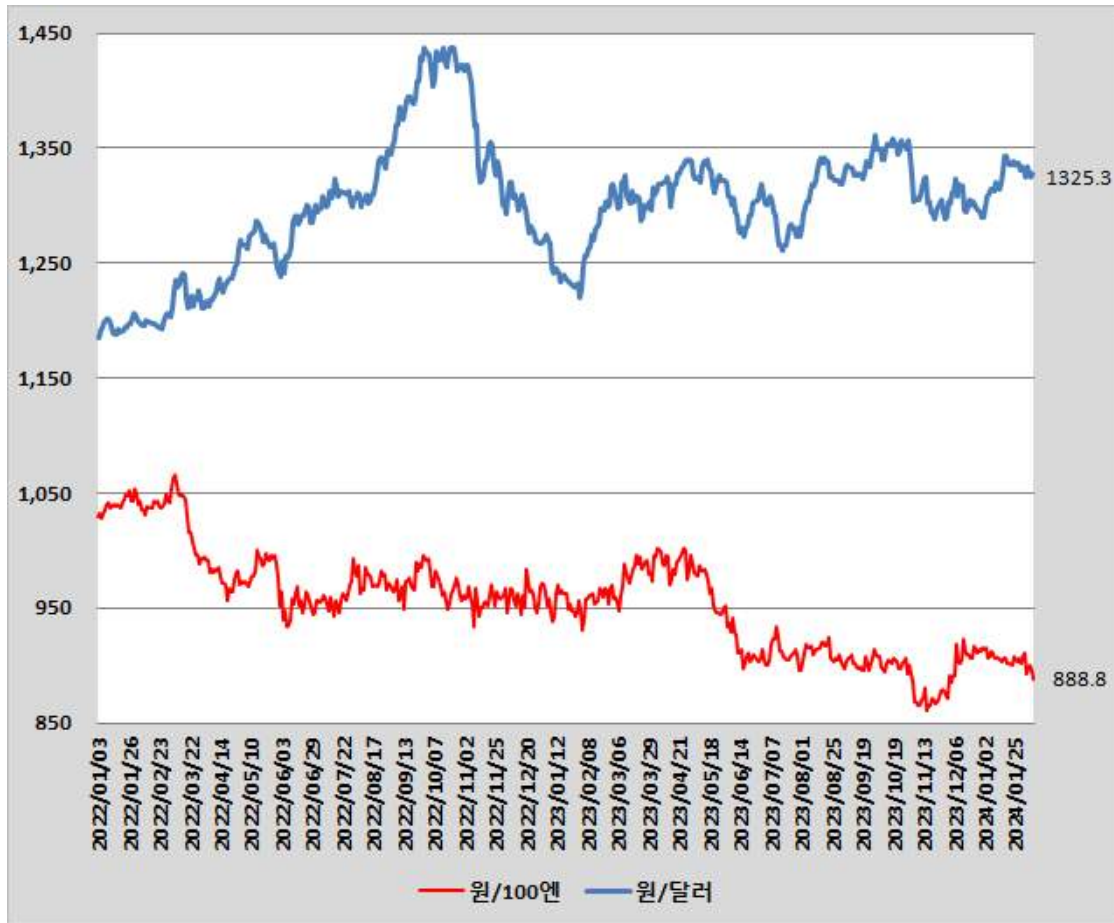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자료: 한국은행

- 원달러 환율. 달러화는 美기준금리 조기인하에 대한 기대감 약화, 글로벌 전쟁리스크 장기화, 견조한 미국경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강세기조를 지속

<그림 1-19> 원/달러, 원/100엔



자료: 한국은행, 국제금융센터

- 미국 2024년 1월 소비자물가(CPI)는 3.1%(전월 3.4%)를 기록하며 예상치를 상회하였으며,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면서 달러화 강세기조 유지
- 미국의 2023년 4분기 실적이 견조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난 것 역시 달러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

## **제 II 장 경제전망**

**1 세계경제**

**2 2024년 경제전망**



# 1. 세계경제

## (1) 세계경제 성장

□ 세계경제는 주요국의 통화긴축 장기화, 중국리스크, 신용위험 확대 등 구조적 불안요인이 부각됨에 따라 경기회복이 지연

- (미국) 고물가 기조 장기화가 성장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소비흐름에 힘입어 예상 성장경로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
  - [성장] 미국 4/4분기 실적이 3.3%를 기록하며 예상치를 큰 폭으로 뛰어넘는 서프라이즈를 시현
  - [소비] 견조한 소비증가세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고금리 장기화와 학자금대출 상환 재개 등으로 소비심리는 점차 가라앉고 있는 모습
  - [투자] 반도체법(2022.8) 및 IRA(2021.8) 법제화 이후 설비투자 역시 고정자산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 지속
  - [물가] 연중 8% 수준을 상회했던 물가도 3% 수준으로 내려 오긴 했으나 하락속도가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며 목표치인 2%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
  - [산업활동]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누적효과로 기업심리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위축하게 되어 생산활동은 4/4분기를 경과하며 점차 약화
    - ✓ GDP 성장률(전기비연율<sup>2)</sup>): 3.2%(2022.3/4분기) → 2.6%(2022.4/4분기) → 2.0%(2023. 1/4분기) → 2.1%(2023. 2/4분기) → 4.9%(2023. 3/4분기) → 3.3%(2023. 4/4분기)
    - ✓ 실업률: 3.7%(10월) → 3.5%(12월) → 3.4%(2023.5월) → 3.7%(2023.6월) → 3.8%(2023.10월) → 3.7%(2023.12월) → 3.7%(2024.1월)
    - ✓ 소비자물가(CPI): 8.6%(2022.2/4분기) → 8.3%(2022.3/4분기) → 6.5%(2022.12월) → 4.9%(2023. 4월) → 3.0%(2023. 6월) → 3.7%(2023. 9월) → 3.1%(2023.11월) → 3.1%(2024.1월)

2) 전기 대비 증가율이 일년(4분기)간 지속될 경우를 가정하여 환산한 성장률

**[이슈 1] 美 상업용부동산 부실 가능성**

■ 미국 내 재택근무 확산 및 고금리장기화로 오피스 등 상업용부동산 투자 부실 우려가 확대

- ◆ 미국 내 재택근무 근로자 비중은 28.8%(2024년 2월 기준)로 팬데믹 이전 대비 20%p 이상 증가
- ◆ 고금리로 인한 이자비용 상승으로 투자자의 이익 감소
- ◆ 할인율 상승에 따라 부동산 평가가치가 하락하고 이에 따라 대출한도 역시 축소
- ◆ 상업용부동산 부실위험 확대로 은행 역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리파이낸싱을 기피

미국 상업용부동산 가격지수

(단위: 지수)



자료: 금융감독원

■ 금리인상 이전에 급증한 상업용부동산 대출 만기 도래로 은행 부실가능성 상승

- ◆ 대출만기 도래 금액은 2024년까지 7.8조원, 2030년까지 26.7조원으로 추산
- ◆ 상업용부동산의 경우, 분할상환방식이 주를 이루는 주택담보대출과는 달리 거치식의 비율이 높아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음

■ 금리인상 이후 늘어난 공실로 임대료를 통한 이자비용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투자수익성이 악화

- ◆ 22년 말 기준 공실률은 오피스 13.9%, 상가 8%로 과거 10년 평균에 비해 각각 2.3%p, 0.8%p 상승
- ◆ 특히 늘어난 공실률은 재택근무 확대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

■ 한국 금융기관의 美상업용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팬데믹 기간을 전후로 급증

- ◆ 한국 금융기관의 해외 부동산 투자 규모는 2023년 9월 기준 56.4조원(금융권 총자산의 0.8%) 수준으로 팬데믹 이전에 비해 약 40% 증가
- ◆ 이 중 미국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34.5조원 규모로 해외 부동산 투자의 61.1%를 차지

### 금융권별 미국 부동산 투자

(단위: 조원, 괄호 안은 %)

은행	보험	증권	상호	여전	저축은행	합계
5.4 (15.6)	20.5 (59.4)	4.2 (12.1)	3.2 (9.2)	1.1 (3.1)	0.03 (0.09)	34.5

자료: 금융감독원

#### ■ 현재까지 상업용부동산의 부실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으나 불확실성은 여전

- ◆ 상업용부동산의 부실우려는 높으나 부실 부동산에 대한 처분거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상업용부동산으로 인한 국내 금융기관의 위기가능성은 현재까지는 높지 않은 상황
- ◆ 다만, 고금리 기조 장기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

## [이슈 2] 최근 미국경제 강세요인

### ■ (실물경제) 고금리-고물가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소비흐름이 성장세를 이끌며 연간 실질 GDP성장률 2.5% 실현

- ◆ 2023년 4/4분기 성장률이 기대치보다 높은 연율 3.3%를 기록하면서 연간 성장률(2.6%)을 기록
  - ✓ 실질 GDP 성장률: 2.2%(2023 1/4)→ 2.1%(2023 2/4)→ 4.9%(2023 3/4)→ 3.3%(2023 4/4)
- ◆ 미국경제의 60%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지출의 견조한 흐름이 경제성장세를 견인하는 동인으로 작용
  - ✓ 개인소비지출(PCE) 증가율: 3.8%(2023 1/4)→ 0.8%(2023 2/4)→ 3.1%(2023 3/4)→ 2.8%(2023 4/4)
  - ✓ 고물가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고용상황에 따른 가계소득 개선 및 풍부한 초과저축<sup>3)</sup>이 견조한 소비흐름을 견인
  - ✓ 기업실적 호조로 2023년 10월 이후 1,400p(38%) 이상 급상승한 주식시장 호황에 따른 부의효과(wealth effect) 역시 소비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

미국 S&P Index

(단위: 지수)



자료: WFH 리서치

- ✓ 2024년 2월 기준 28.8%<sup>4)</sup>(팬데믹 이전 대비 20%p 이상 증가)까지 확대된 재택근무자 비중 역시 여가소비를 늘리며 소비지출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

미국 재택근무자 비중

(단위: %)

년도	1965	1980	1995	2010	2020	2024
비중	0.4	2.7	2.2	5.1	61.5	28.8

자료: S&P Dow Jones Indices LLC

- ◆ 정부지출은 팬데믹 관련 재정지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동지역 등 전쟁리스크에 따른 국방비 지출 증가의 영향으로 4.0% 증가

3) 美가계부문의 초과저축은 팬데믹 시기 소비지연에 따라 2021년말 기준 2조3천억달러로 고점을 찍었으며, 이러한 초과저축액이 금리인상에도 소비를 지속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

4) 풀타임 재택근로자 기준

■ (노동시장)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세계에서 가장 유연한 노동시장

- ◆ 노동자의 해고와 관련하여 강력하고 복잡한 규제를 가진 우리나라와는 달리 ‘해고 60일전 통보’를 유일한 고용보호 조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, 세계에서 유일하게 ‘일시해고제도’를 두고 있어서, 경영상태 악화 시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
- ◆ 노조조직률은 1964년(23.6%) 이후로 계속 하락하여 현재 13% 이하
- ◆ 프레이저 인스티튜트가 발표하는 노동시장 유연성 평가에서 미국은 세계 150대 이상 국가들 중 1~2위를 차지해 옴
  - ✓ 美 테크업계는 2023년 26만 3,000명을 해고한 것에 이어 올해도 인공지능(AD)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 3만 4,000명 이상을 전략적으로 해고
  - ✓ 대량해고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빠른 재취업으로 실업수당 신청건수는 급증 없이 주당 20만건 이하를 기록한 가운데 실업률 역시 안정세를 유지
- ◆ 이에 따른 결과로, 최근 미국의 노동시장은 역사상 최저 실업률(2024년 1월 기준 3.7%)을 보이고 있는 상황

■ (금융시장) 세계최대 규모인 미국의 금융시장은 SVB 사태 등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바 있으나 美연준을 비롯한 금융당국의 발빠른 대처로 빠르게 안정화

- ◆ 시장금리는 연준의 국채발행 축소에 힘입어 4% 초반 수준까지 하락
- ◆ 주식시장은 고금리 지속 가능성 대두에 따라 하락하였으나 시장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최근 재상승

■ (경제정책) 미국은 세계경제에 대한 강력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실리적인 경제정책을 구사하는 가운데 고속런 인재를 활발히 유입

- ◆ 칩스법(반도체법)과 인플레이션감축법(IRA)을 제정하여 반도체, 이차전지, 배터리 등 첨단기술 제조업의 미국유치를 적극적으로 나서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
- ◆ 특히, 관대한 이민정책으로 인해 고속런 인재 유치가 활발히 이뤄져 기술혁신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

■ [종합평가] 미국경제는 연준의 기준금리 피벗 시기, 중동지역 전쟁리스크, 그리고 美대선의 전개양상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으나, 견조한 노동시장과 높은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안정적 기조를 이어가며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

- (중국)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, 구조조정 및 부채문제가 여전히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급진적인 부동산 축소 정책 등으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
  -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책 확대 기대감으로 일부 중국기업의 주가는 일시적인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으나, 수출회복이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깊어지는 가운데 소비 등 거시 펀더멘탈 지표는 아직 기초적인 개선흐름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

- 글로벌 수요의 빠른 회복 역시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중국경제는 상당기간 부진을 면치 못하게 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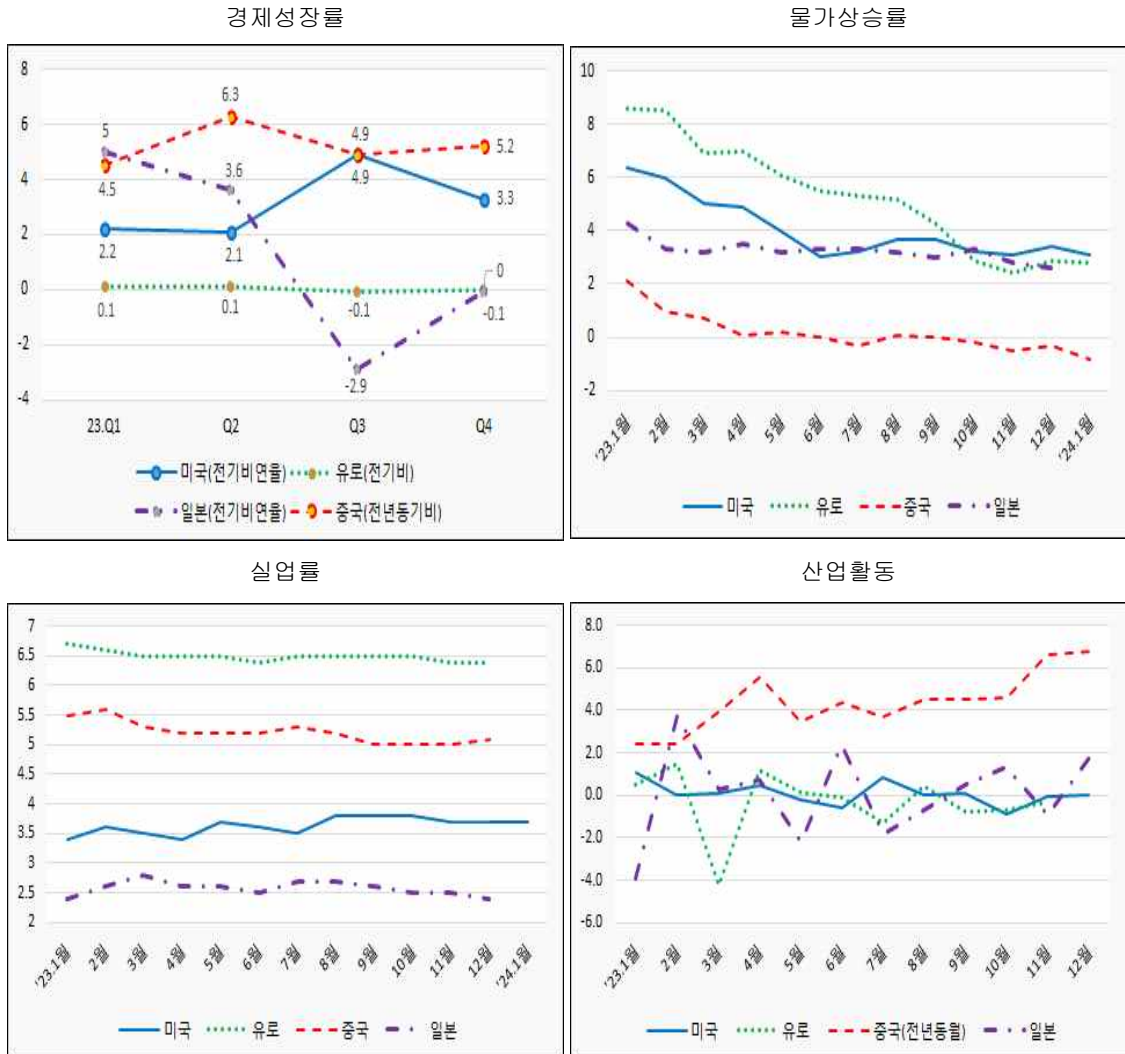
중국경제 부진 요인	
과도한 부채문제	지방정부 부채는 23조달러 <sup>5)</sup> (약 3경원) 수준에 이룸
디플레이션	낮은 생산자물가(14%(2021)→0.7%(2023))가 디플레이션을 견인
과소 소비	과소 소비 트렌드의 출현으로 중국은행 예금액이 15조위안(2021)에서 20조위안(2023)까지 급등
고용시장 불안	2021년 0%에 가깝던 청년실업률이 현재 21%까지 급등
위안화 약세	위안/달러: 6.3(2021)→7.3(2023)
외국인 투자자금 이탈	2022년초 이후 월평균 100억위안씩 순유출이 이뤄지고 있으며, 이탈자금의 상당액이 일본으로 유입
美 대중의존도 감소	미·중 무역분쟁의 결과 미국의 대중 수입의존도가 급격히 감소(21.5%(2021)→15.1%(2023))

- (일본) 고물가에 따른 심리위축으로 소비회복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나, 정부주도의 투자촉진 정책에 따른 설비투자가 증가가 성장세 회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
- (유로) 고물가 흐름 및 신용여건 악화로 내수부문과 대외부문이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, 유로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성장부진 장기화 가능성까지 대두되며 불확실성이 확대

5) 골드만삭스 추산

<그림 II-1> 주요국 경제지표 추이

(단위: %)



자료: 한국은행, 국제금융센터

주요국 최근 경제지표				
	경제성장률 2023.Q4 (%)	소비자물가 2024.01 (동월비, %)	실업률 2023.12 (동월비, %)	산업생산 2023.12 (전월비, %)
미 국	3.3	3.1	3.7	0.1
유 로	0.0	2.8	6.4	
중 국	5.2	-0.8	5.1	6.89 (전년동월)
일 본	-0.1	2.6 (2023.12)	2.4	1.8

<표 II-1> 세계 경제 전망

(단위: %)

	실적치	2024 1월 전망치		2023 10월 전망치와 비교(%p)	
		2024	2025	2024	2025
	2023	2024	2025	2024	2025
<b>세계</b>	<b>3.5</b>	<b>3.1</b>	<b>3.2</b>	<b>0.2</b>	<b>0.0</b>
선진국	2.6	1.5	1.8	0.1	0.0
미국	2.5	2.1	1.7	0.6	-0.1
영국	0.5	0.6	1.6	0.0	-0.4
유로존	0.5	0.9	1.7	-0.3	-0.1
일본	1.9	0.9	0.8	-0.1	0.2
신흥개도국	4.1	4.1	4.2	0.1	0.1
중국	5.2	4.6	4.1	0.4	0.0
인도	6.7	6.5	6.5	0.2	0.2
브라질	3.1	1.7	1.9	0.2	0.0

자료: IMF World Economic Outlook(Jan 202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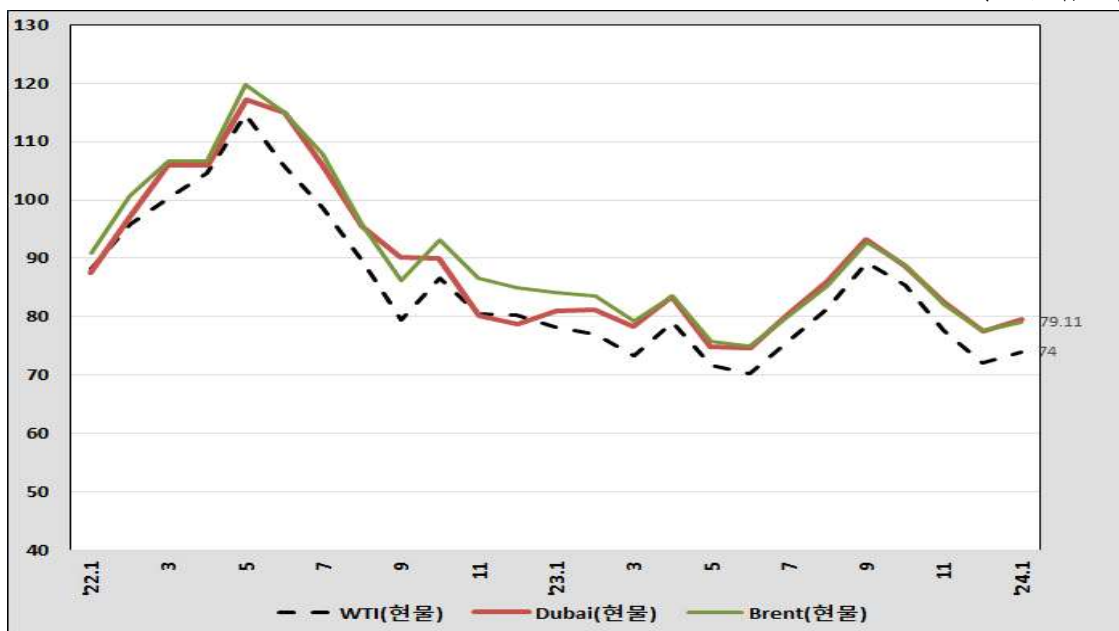


## (2) 국제 유가

- OPEC+의 감산과 러시아의 석유제품 수출 제한 등 공급제한 요인이 부각되며 90달러대 수준까지 상승했던 국제유가는 미국 등 비OPEC+ 국가들의 일시적 증산에 따른 공급증가로 배럴당 70달러 후반 수준으로 하락

<그림 II-2> 국제유가 추이

(단위: \$/bbl)



자료: 한국석유공사([www.petronet.co.kr](http://www.petronet.co.kr))

- (전망) 주요 산유국의 감산기조 지속과 세계경기 회복에 따라 유가에 대한 상방압력이 증대되면서 배럴당 \$80 수준을 기록할 전망

- 유가는 상반기에 비해 금리인하 및 경기회복세 확대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에 상승폭이 커질 전망
- 하반기 이후 가시화될 수 있는 중국의 경기회복세 확대 가능성 역시 국제유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

<표 II-2> 세계 석유 수급 전망

(단위: 백만bbl/d)

구분	2023	2024				
		1/4	2/4	3/4	4/4	평균
수요	101.00	100.06	102.09	102.82	102.85	102.42
공급	101.75	101.85	102.25	102.98	103.12	102.30
OPEC 공급(원유)*	32.19	33.15	33.21	33.39	33.19	31.98
비OPEC 공급	69.56	68.70	69.04	69.59	69.93	70.32
재고변동(수요-공급)	-0.75	-0.97	-0.17	0.98	0.38	0.12

주: \*OPEC 12개국

자료: EIA Short Term Energy Outlook Feb 2024

<표 II-3> 해외 주요기관 유가(기준유가) 전망

(단위: \$/bbl)

기관 (전망시기)	유종	2023	2024				
			1/4	2/4	3/4	4/4	평균
EIA 2024.02	WTI	77.58	77.33	79.36	77.50	76.50	77.68
EIA 2024.02	Brent	82.41	82.66	84.03	82.00	81.00	82.42

주: EIA(美 에너지정보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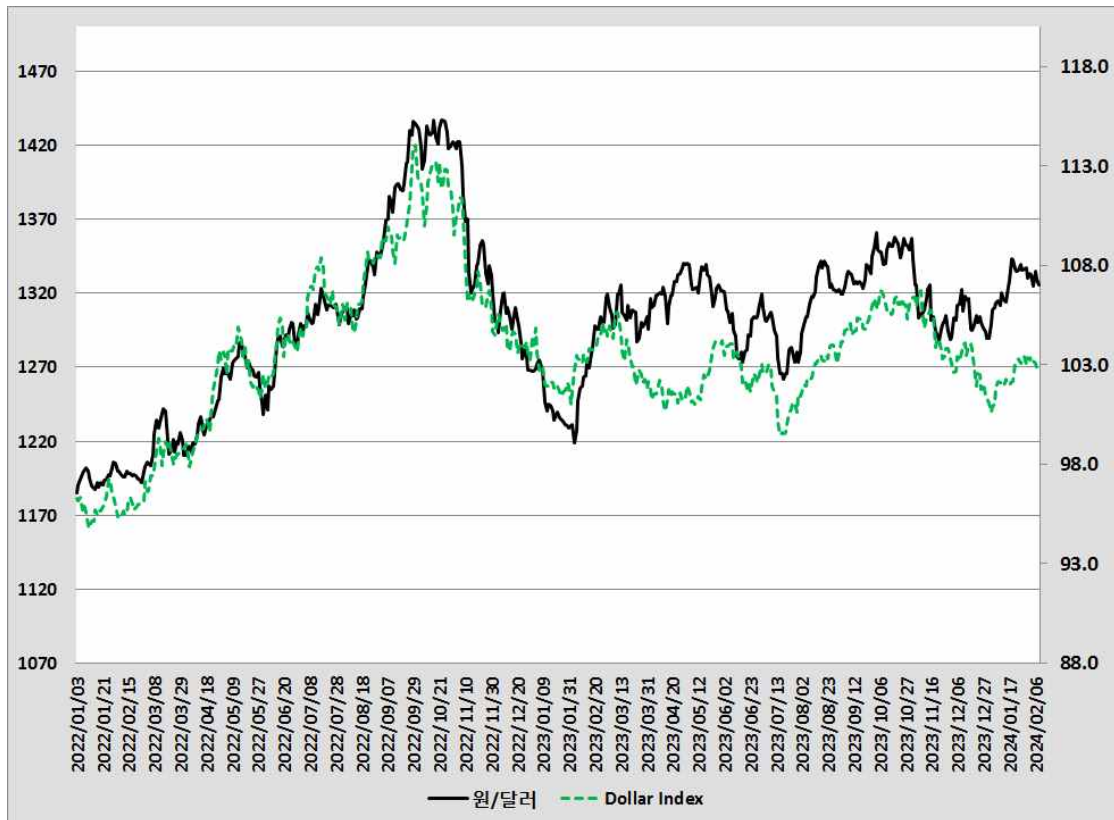
자료: EIA

### (3) 환율 및 금리

□ 원/달러 환율: 2023년 1,305원/달러 → 2024년 1,295원/달러

- 달러화 강세흐름은 하반기를 경과하며 美연준의 금리인상 마무리와 美성장둔화에 따라 점차 약화되는 가운데, 한국의 수출회복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 등 원화강세 요인까지 부각되며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일 전망
- 다만, 미국의 고물가 흐름이 장기화되고 중국의 경기불안감 확대되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된다면 환율하락 속도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게 될 가능성 역시 상존

<그림 II-3> 원/달러, 달러 인덱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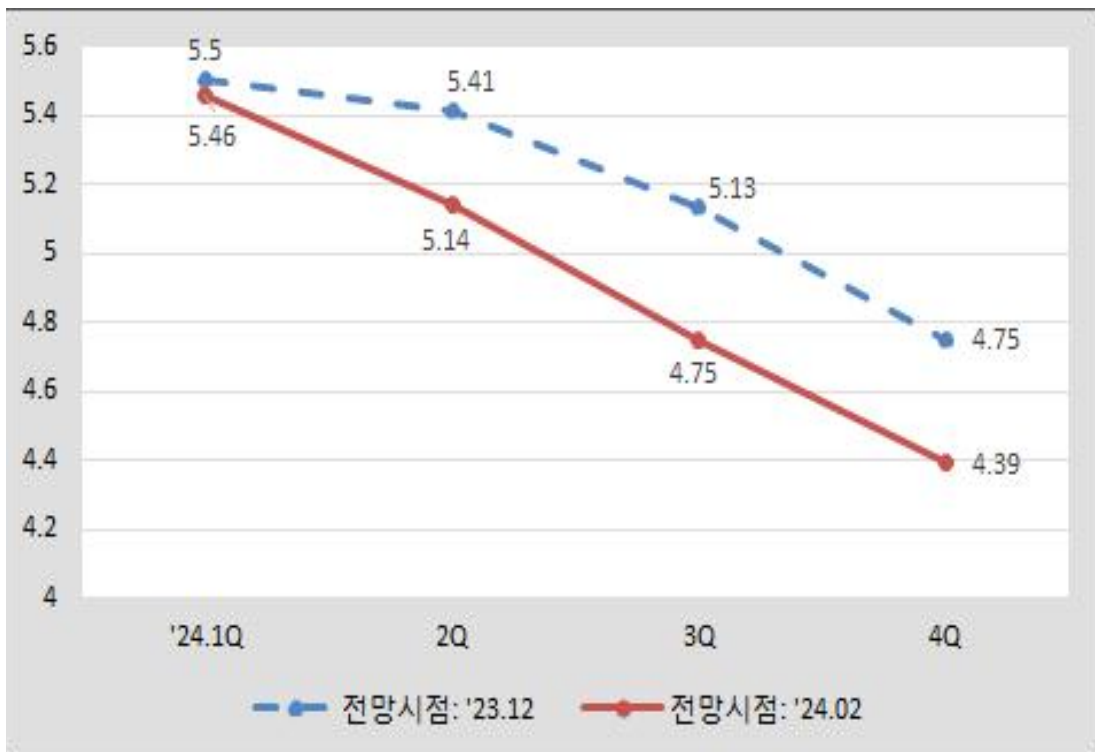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, 국제금융센터

□ 정책금리: 2023년 3.5%(최종) → 2024년 3.00%(최종)

- 美연준은 현재의 인플레이션 전망이 변하지 않을 경우, 상당기간 동결기조를 유지하다 하반기 이후 인하시점을 모색할 전망
- 한국은행은 미국과 2%까지 벌어진 금리차를 줄여 자본유출 가능성을 낮추고 대내 민간부채 증가속도 조절을 위해 美기준금리 인하가 현실화되면 후행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될 것으로 예상

<그림 II-4> 미국 기준금리 전망

(단위: 퍼센트%)



자료: 해외 주요 IB 전망 평균치

□ 이상의 대외여건을 감안하여 전망의 주요 전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

<표 II-4> 전망의 주요 전제

	2023년	2024
세계경제성장률	3.5%	3.1%
국제유가(두바이유 기준, 배럴당)	\$79.99	\$80.15
원/달러 환율	1,305	1,295

## 2. 2024년 경제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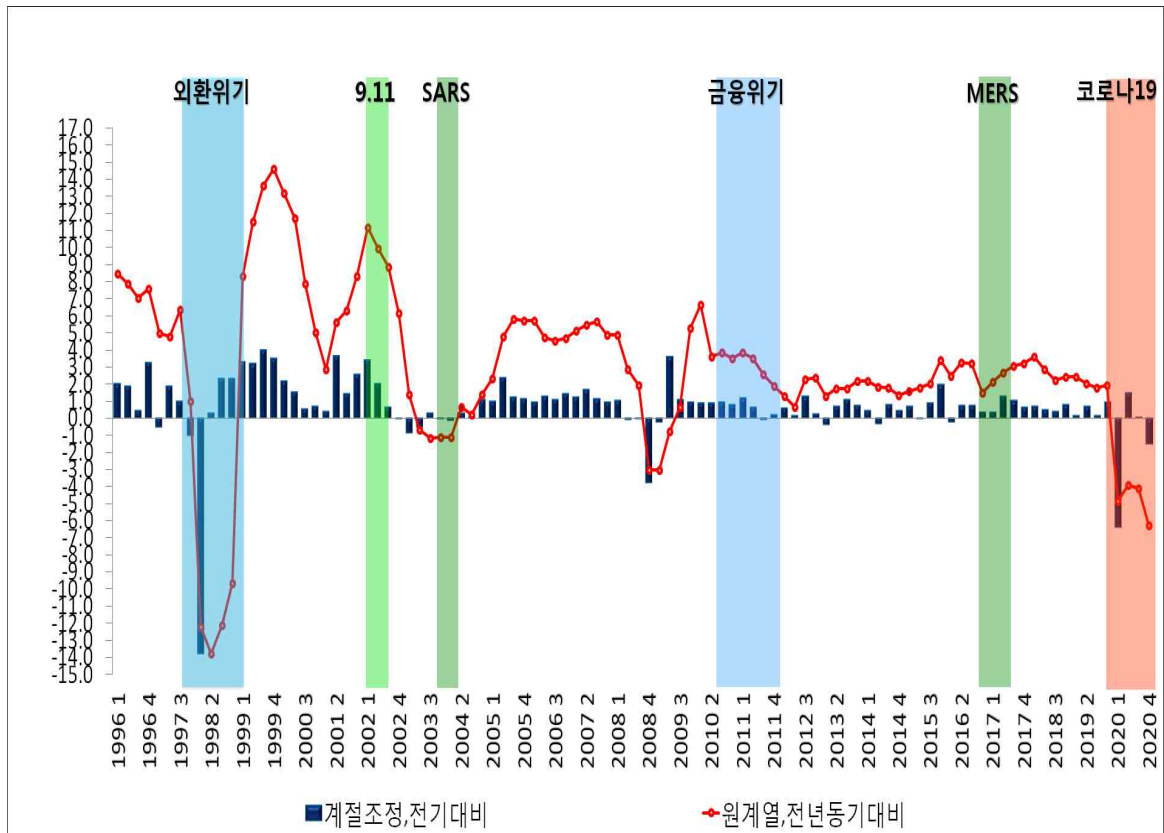
### (1) 경제성장

□ 민간소비 : 1.6% (상반1.2 하반2.0)

#### ▷ 주요 위기별 민간소비 증감률

- ✓ 외환위기: -11.6% ( '98.1Q~'98.4Q, 평균)
- ✓ 사스: -0.7% ( '03.2Q)
- ✓ 금융위기: -3.0% ( '08.4Q~'09.1Q, 평균)
- ✓ 페르스: 1.9% ( '14.2Q)
- ✓ 코로나19: -5.0 (2020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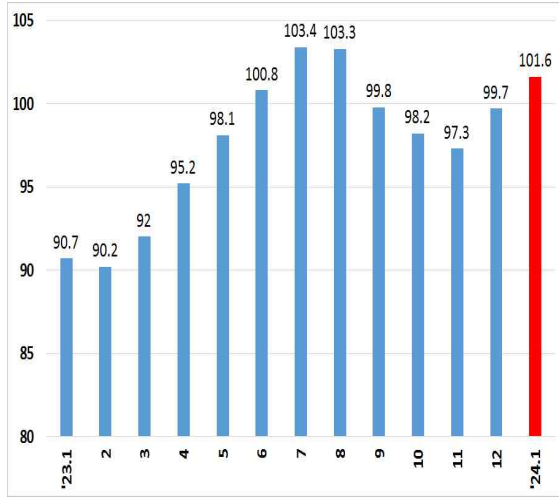
<그림 II-5> 역사적 민간소비 증감률(1996~2016)



자료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

<그림 II-6> 소비자심리 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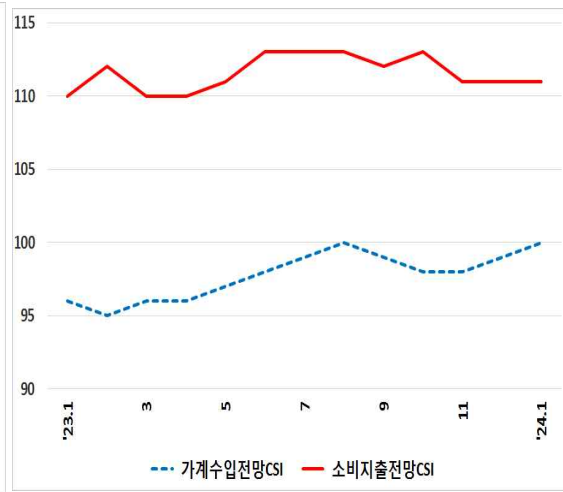
(단위: 지수)



자료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

<그림 II-7> 가계 수입·지출 전망

(단위: 지수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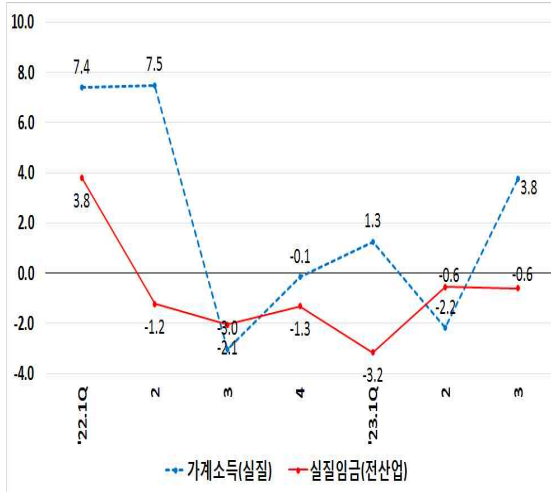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

— 민간소비는 물가안정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로 소비여건이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진행되어 온 소득기반 부실화와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지속 등으로 미약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

- 소득기반 약화: 자영업자 업황부진 지속 및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임금 상승폭 축소로 소득기반 약화
- 고금리로 인한 원리금상환 부담 증가: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로 매분기 이자비용만 95조원 수준에 육박하며 소비여력이 큰 폭으로 감소
- 완만한 경기회복에 따라 소비심리 역시 회복이 더딜 전망
-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및 금리 피크아웃(Peak-out)의 지연에 따라 원리금 상환부담에 따른 소비위축이 상당기간 지속되고 가계대출 연체율도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

<그림 II-8> 최근 가계 소득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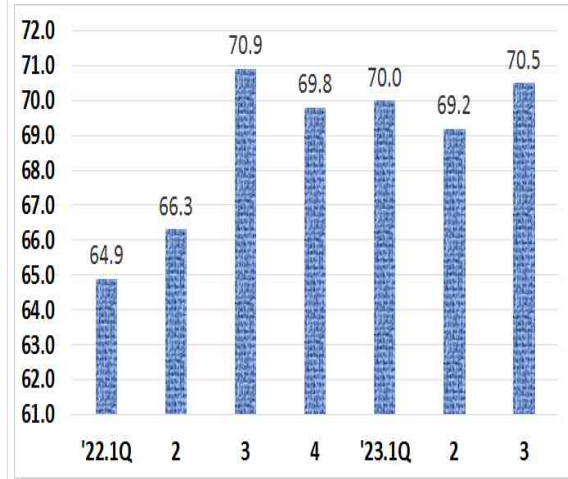
(단위: 전년동기비 %)



자료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

<그림 II-9> 평균소비성향

(단위: %)



자료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

<그림 II-10> 가계대출 이자부담 추이

(단위: 조원, 연리%)



자료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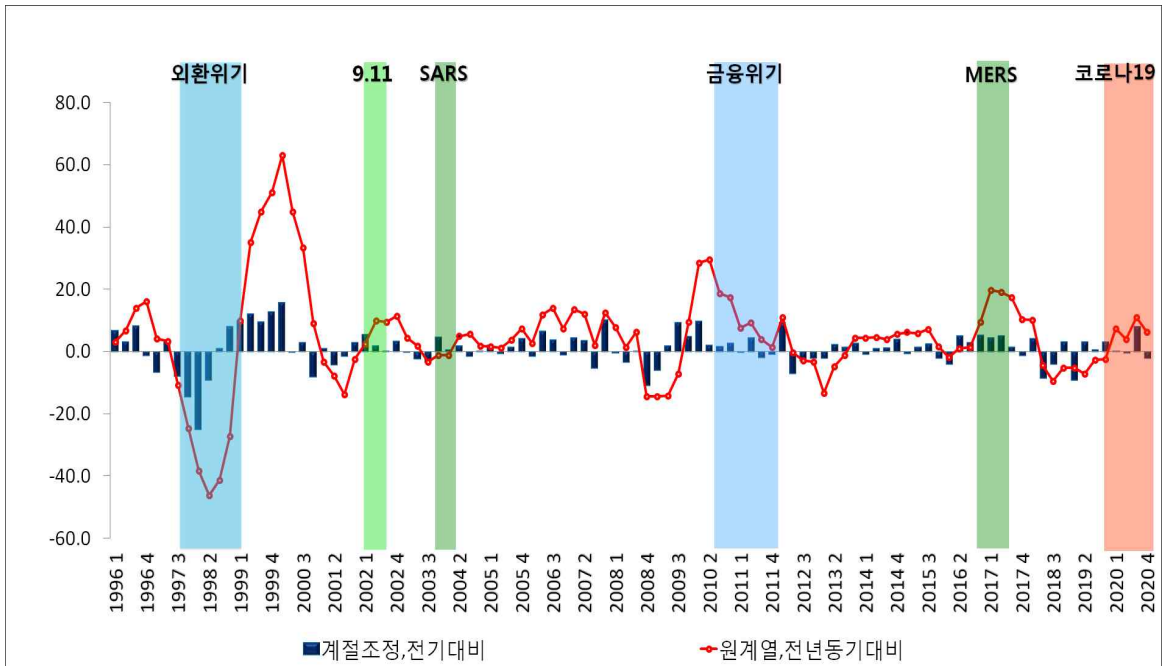


□ 설비투자 : 3.0% (상반-1.5 하반7.5)

▷ 주요 위기별 설비투자 증감률

- ✓ 외환위기: -38.3% ('98.1Q~'98.4Q, 평균)
- ✓ 사스: 1.8% ('03.2Q)
- ✓ 금융위기: -14.4% ('08.4Q~'09.1Q, 평균)
- ✓ 메르스: 4.5% ('14.2Q)
- ✓ 코로나19: 6.8 (2020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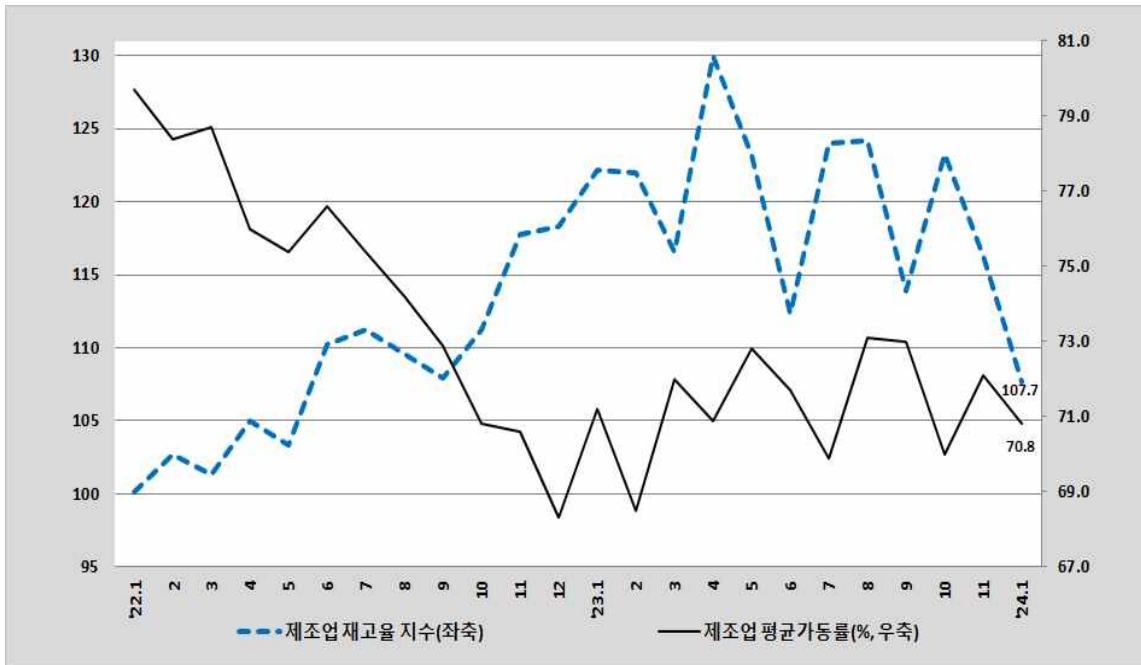
<그림 II-11> 역사적 설비투자 증감률(1996~2016)



자료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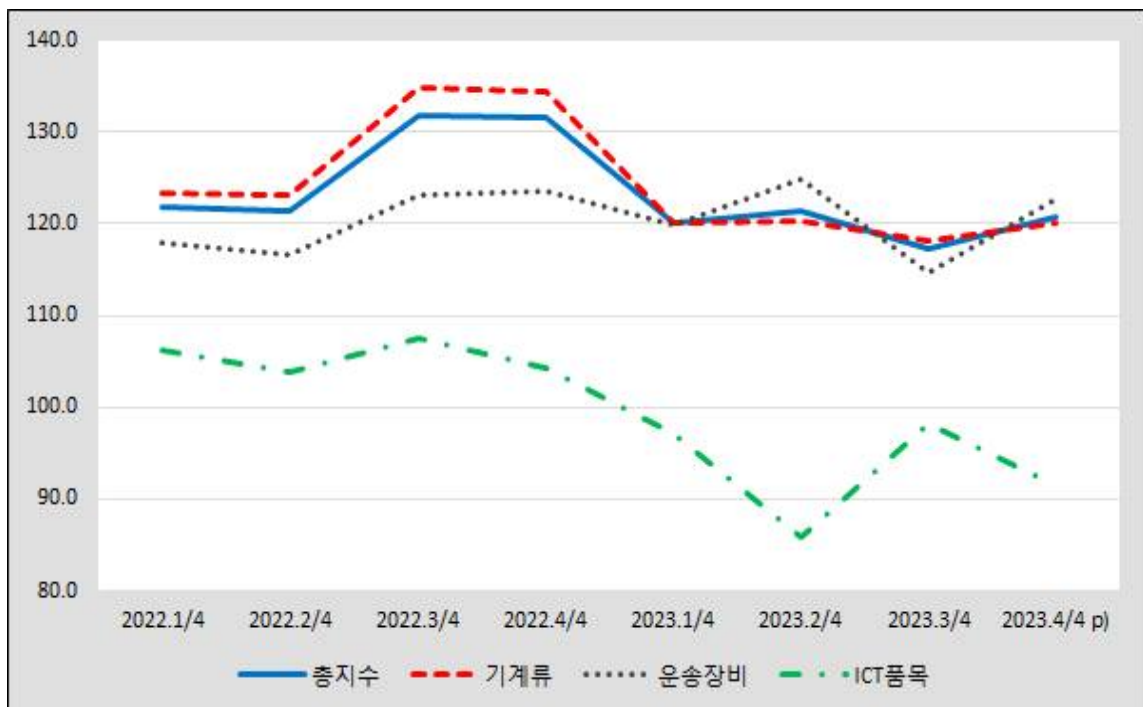
—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둔화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인상으로 인한 자본조달 부담까지 가중되며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, 하반기를 경과하며 글로벌 IT 시장 회복세 확대, 금리 피크아웃 현실화의 영향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일 전망

<그림 II-12> 제조업 설비투자압력



자료: 통계청

<그림 II-13> 설비투자지수(2015=100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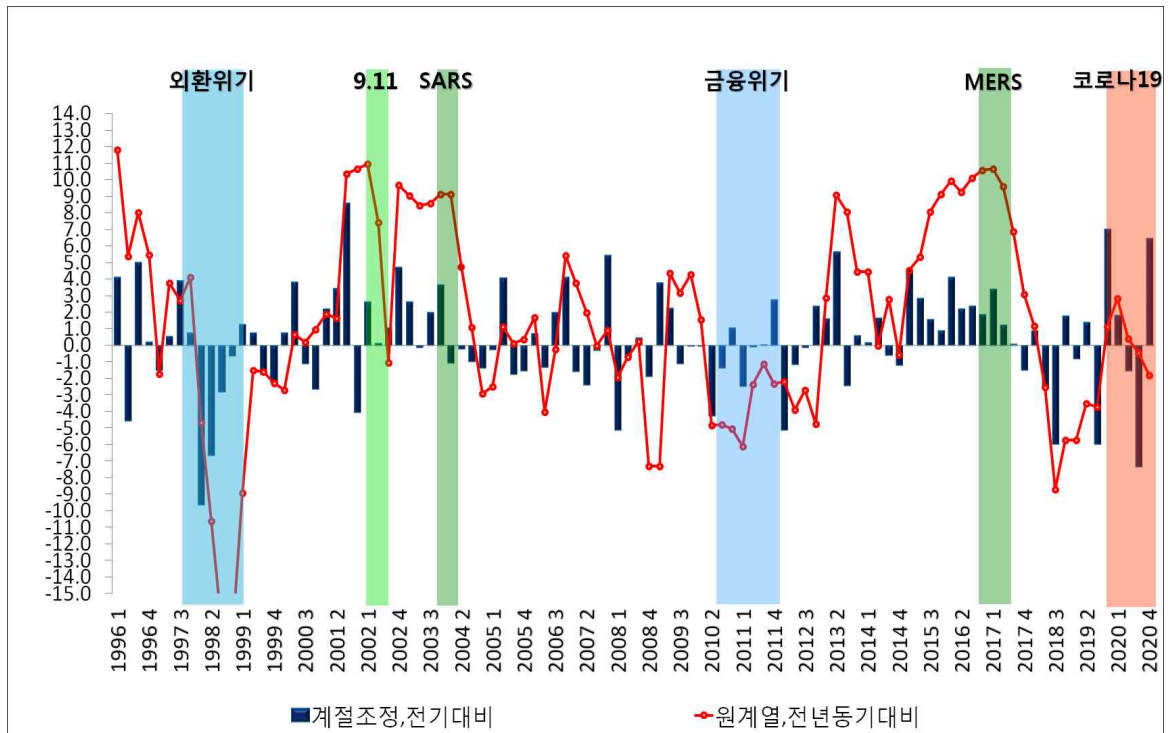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

□ 건설투자 : -1.5% (상반-0.6 하반-2.4)

▷ 주요 위기별 건설투자 증감률

- ✓ 외환위기: -12.5% ( '98.1Q~'98.4Q, 평균)
- ✓ 사스: 8.4% ( '03.2Q)
- ✓ 금융위기: -7.3% ( '08.4Q~'09.1Q, 평균)
- ✓ 페르스: 0.0% ( '14.2Q)
- ✓ 코로나19: -0.1 (2020년)

<그림 II-14> 역사적 건설투자 증감률(1996~2016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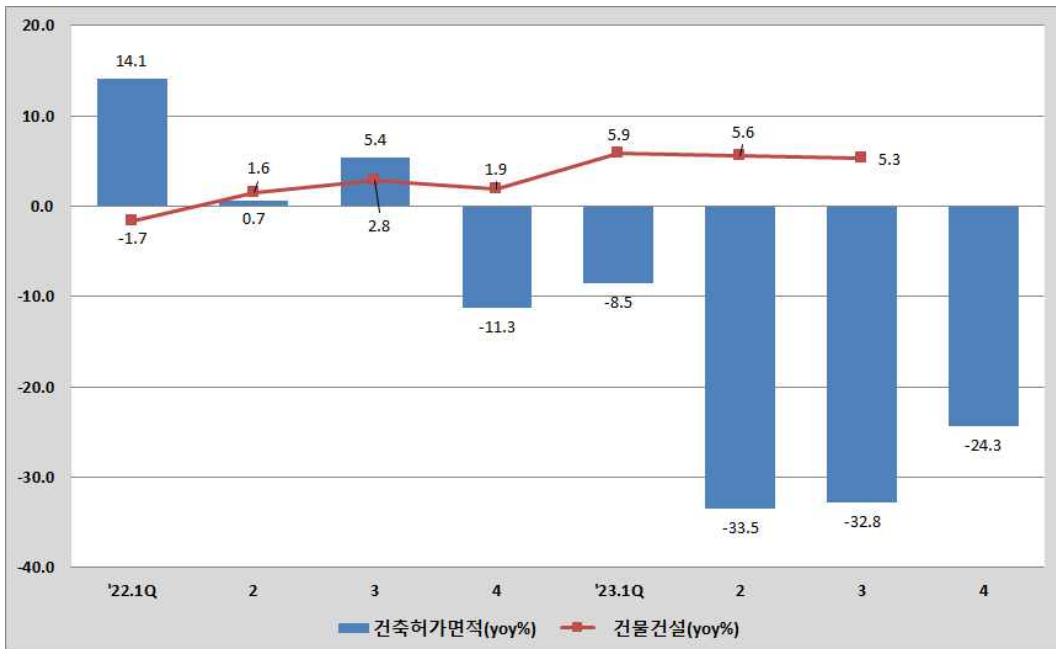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

- 건설투자는 정부의 SOC 예산 확대에 따른 토목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2023년 건설수주, 인허가 감소에 따른 결과로 부진흐름이 지속될 전망
- 특히, 원자재 가격의 고물가 흐름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가운데, 주택시장 위축 및 금리인상에 따른 자금조달 압박까지 가중되어 회복을 기대하기 난망한 상황

- 부동산 PF 관련 이슈로 건설산업 전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대주단 협약 등 정부의 중재와 관련 대책이 수차례 발표되었으나 향후 건설경기에 대한 불안감은 쉽게 줄어들고 있지 못한 상황
- 높은 원자재가격으로 인한 공사현장의 차질에 대한 수습과 및 미분양 증가에 따른 건설업체의 자금난 등의 지속이 올해 건설투자 부진흐름 주요 변수로 작용

<그림 II-15> 건축허가 연면적 증가율 추이

(단위: 전년동기비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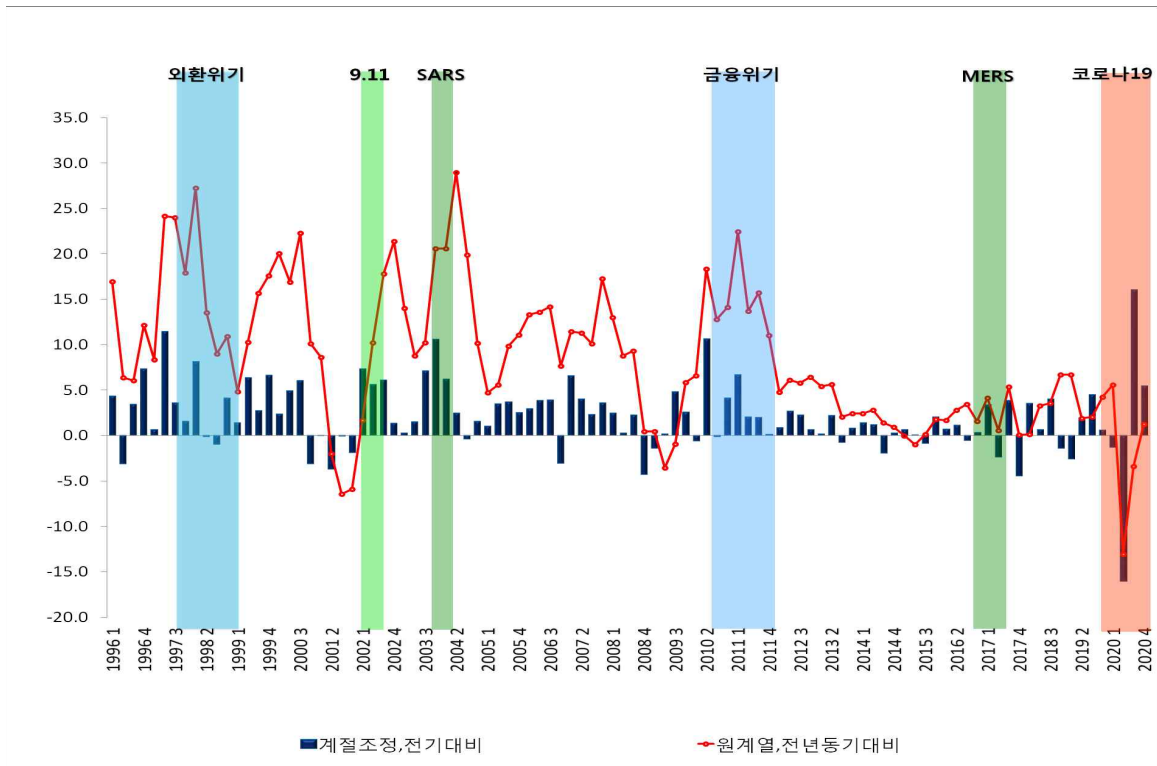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한국은행

□ 상품수출: 3.6% (상반4.3 하반2.8)

▷ 주요 위기별 수출 증감률

- ✓ 외환위기: 15.2% ('98.1Q~'98.4Q, 평균)
- ✓ 사스: 8.8% ('03.2Q)
- ✓ 금융위기: -0.9% ('08.4Q~'09.3Q, 평균)
- ✓ 메르스: 2.8% ('14.2Q)
- ✓ 코로나19: -2.4 (2020년)

<그림 II-16> 역사적 수출 증감률(1996~2016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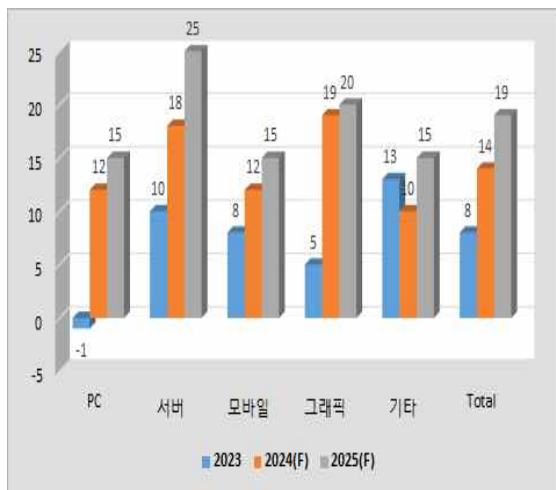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

— 수출은 글로벌 수입수요가 점차 회복하고 IT 경기회복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지난해 낮았던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까지 반영되면서 뚜렷한 개선흐름을 보일 전망

- 지난해까지 고금리 기조, 주요국 간 교역분절화, 중동지역 전쟁 여파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글로벌 교역규모는 2023년 연말을 경과하며 부진이 다소 완화
- 국제기구들은 2024년 교역증가율을 2~3% 내외로 내다보면서 2023년 마이너스(-)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부진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
-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중국의 경기회복 역시 단기에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나,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목의 높은 증가세가 연말까지 원만히 이뤄진다면 2024년 수출은 3.6%를 웃도는 반등을 이룰 것으로 전망
  - IDC는 2024년 글로벌 반도체시장은 인공지능과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20%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
  - 인공지능 분야에서 고대역 메모리, 대용량 메모리로 선두를 지키고 있는 국내 반도체 업계의 수출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

<그림 II-17> 반도체시장 전망: Memor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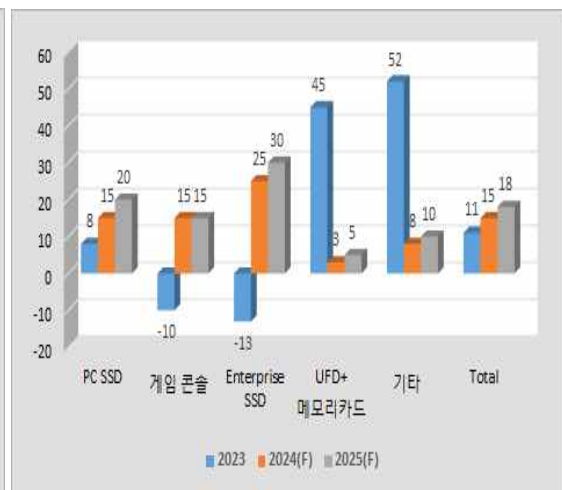
(단위: 전년동기비 %)



자료: WSTS, 유진투자증권

<그림 II-18> 반도체시장 전망: NAND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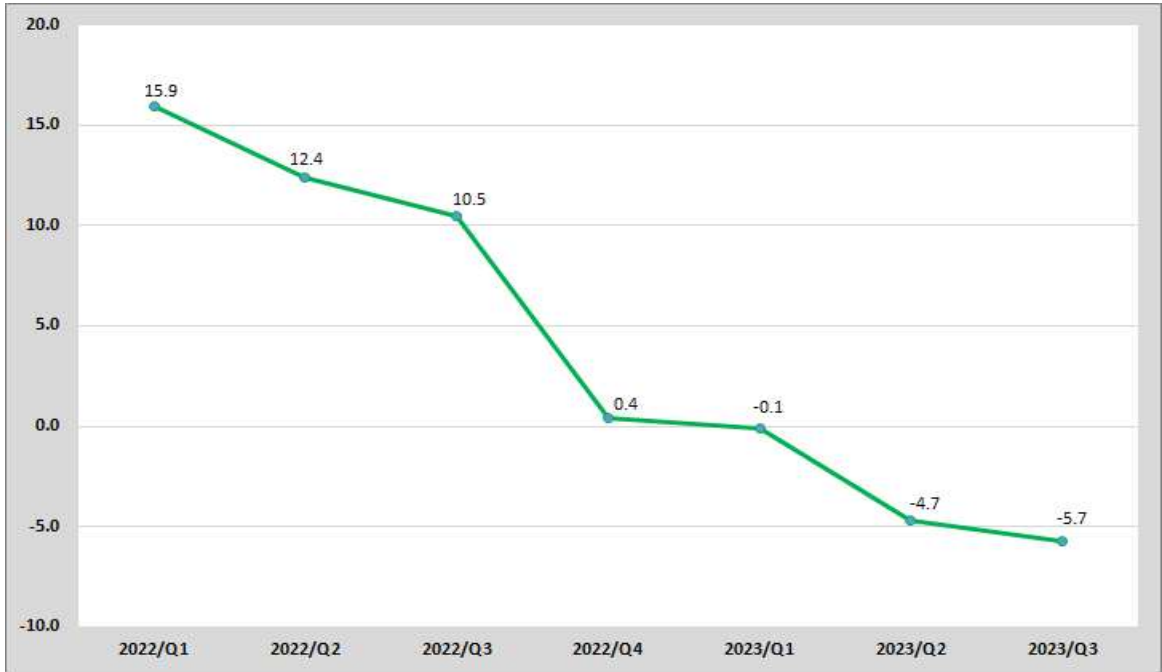
(단위: 전년동기비 %)



자료: WSTS, 유진투자증권

<그림 II-19> 세계교역량 증가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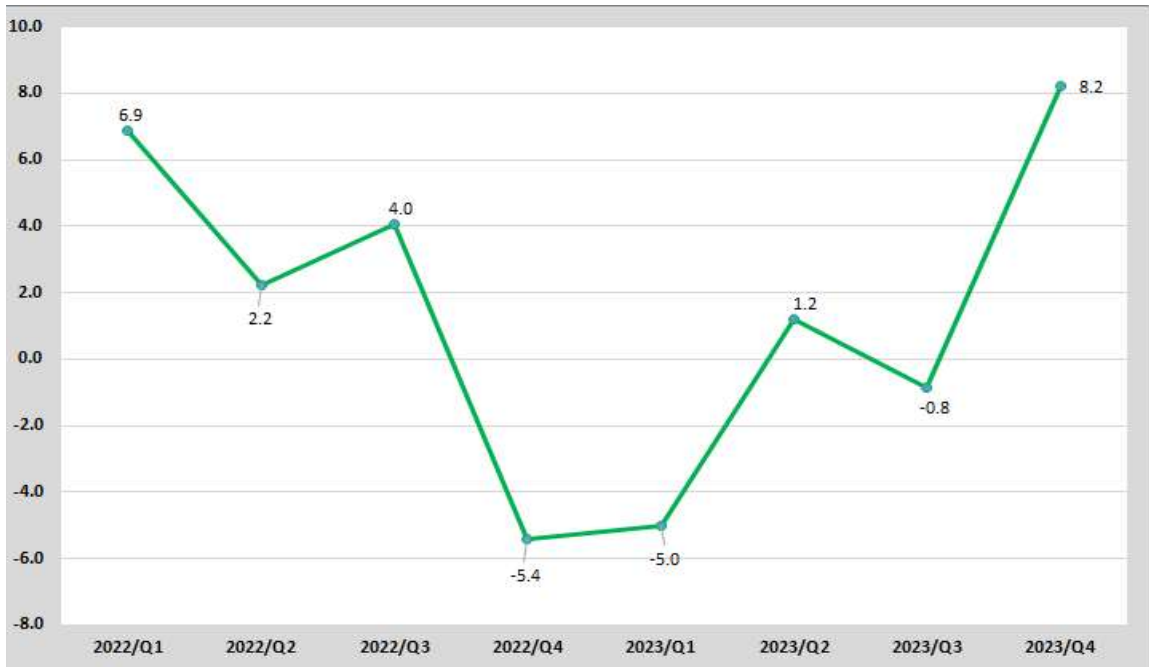
(단위: 전년동기비 %)



자료: IMF,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

<그림 II-20> 수출입물량지수 증가율

(단위: 전년동기비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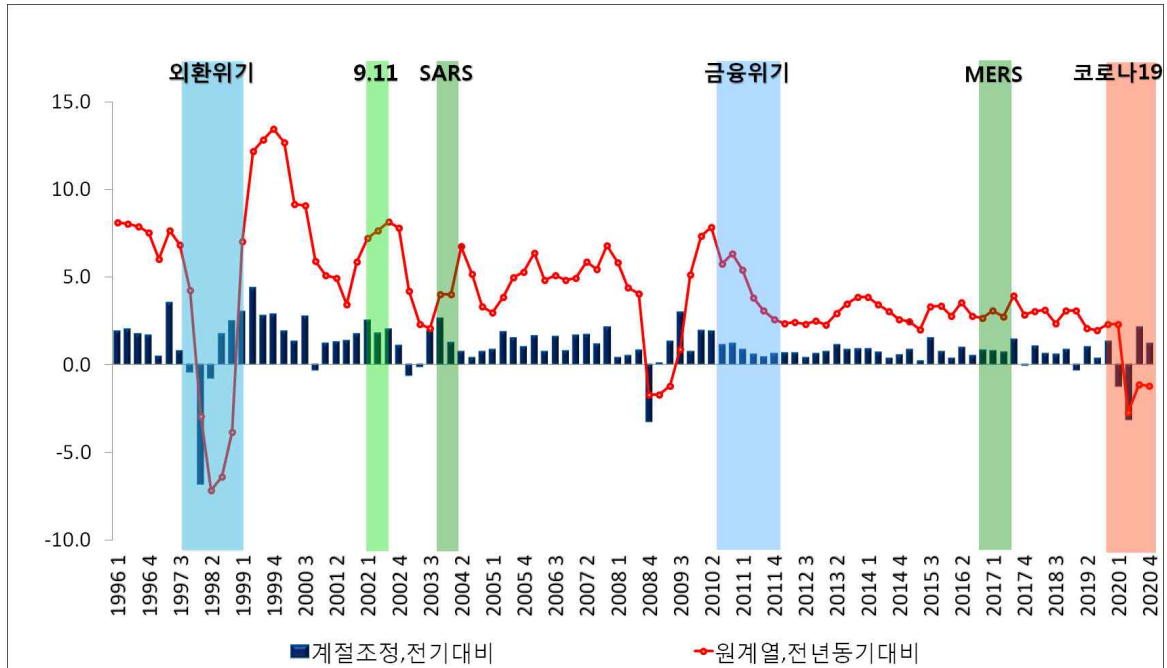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

□ GDP 성장률: 2.0% (상반2.2 하반1.8)

▷ 주요 위기별 GDP 증감률

- ✓ 외환위기: -5.1% ('98.1Q~'98.4Q, 평균)
- ✓ 사스: 2.3% ('03.2Q)
- ✓ 금융위기: -1.5% ('08.4Q~'09.2Q, 평균)
- ✓ 메르스: 3.4% ('14.2Q)
- ✓ 코로나19: -1.0 (2020년)

<그림 II-21> 역사적 GDP 증감률(1996~2016)



자료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

- 2024년 한국경제는 내수부진 지속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호조에 힘입어 팬데믹 이전 수준인 2.0%의 경제성장률을 회복하게 될 전망
- [주요 하방리스크] 중국경제 리스크,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동, 민간부채 연체율 급등 등 금융시장 위기 가능성 등이 2024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전망



❖ 중국경제 리스크

- ✓ 중국의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.6%로 2023년 전망치인 5.2%에 비해 0.6%p 낮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
- ✓ 부동산 불황과 기업부채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수출의 증가세도 미약한 가운데, 소매판매, 서비스업, 관광업에 국내총생산 증가 기여가 몰려있다는 점에서 경기불황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상황

❖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원자재 가격 재불안 가능성

❖ 민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에 따른 연체율 급등 등 금융시장 위기 가능성

[기업부문]

- ✓ 은행권의 기업부채는 고금리 상황 지속에도 불구하고 가파르게 증가하여 현재 1,155조원을 돌파했으며, 대기업에 비해 자금상황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대출비중(59%)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
⇒ 은행권 기업대출 전기비 증감액: 19.1조(2023.1Q)→20.8조(2Q)→28.2조(3Q)
- ✓ 기업부채 중 한계기업의 기업부채는 전체 기업부채의 19.5%인 225조원으로 추정
- ✓ 경영환경 악화에 따라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 감당이 불가능하게 된 한계기업은 3,900여 업체로 전체기업의 15%를 웃돌며 5년 만에 최고치 기록
- ✓ 기업실적 악화에 따라 전체 기업대출 연체율은 0.34%에서 0.39%로 오르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연체율은 0.39%에서 0.47%로 빠르게 상승하면서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, 한계기업의 연체율은 더욱 빠르게 상승하게 될 것으로 전망
- ✓ 올해 9월까지 파산신청한 법인은 1,213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64% 이상 증가를 보였으며, 최근 1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  
☞ *기업의 연체율 및 파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부채위기發 연쇄부도에 대한 우려가 확산*

[가계부문]

- ✓ 은행권의 가계대출 역시 정책모기지 확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수요확대로 2023년 중 21조원 이상 순증가
- ✓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2.2%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, 이에 IMF는 스웨덴, 벨기에, 프랑스와 함께 가계부채 취약국으로 지목
- ✓ 가계부채 연체율은 2023년 8월 기준 0.43%로 전년 동월 대비 0.19%p 급격히 상승
- ✓ 1~9월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90,437건으로 현 추세대로라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

- ✓ 개인회생 신청자 중 30세 미만 청년의 비율이 2020년 10.7%에서 2021년 15.2%로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며, 개인파산으로 이어지는 비율 또한 빠르게 증가
- ✓ 코로나19 기간 중 개인파산을 승인받은 이후 최근 재파산을 신청하는 건수도 증가
- ☞ 전체적인 가계소득 기반 약화는 물론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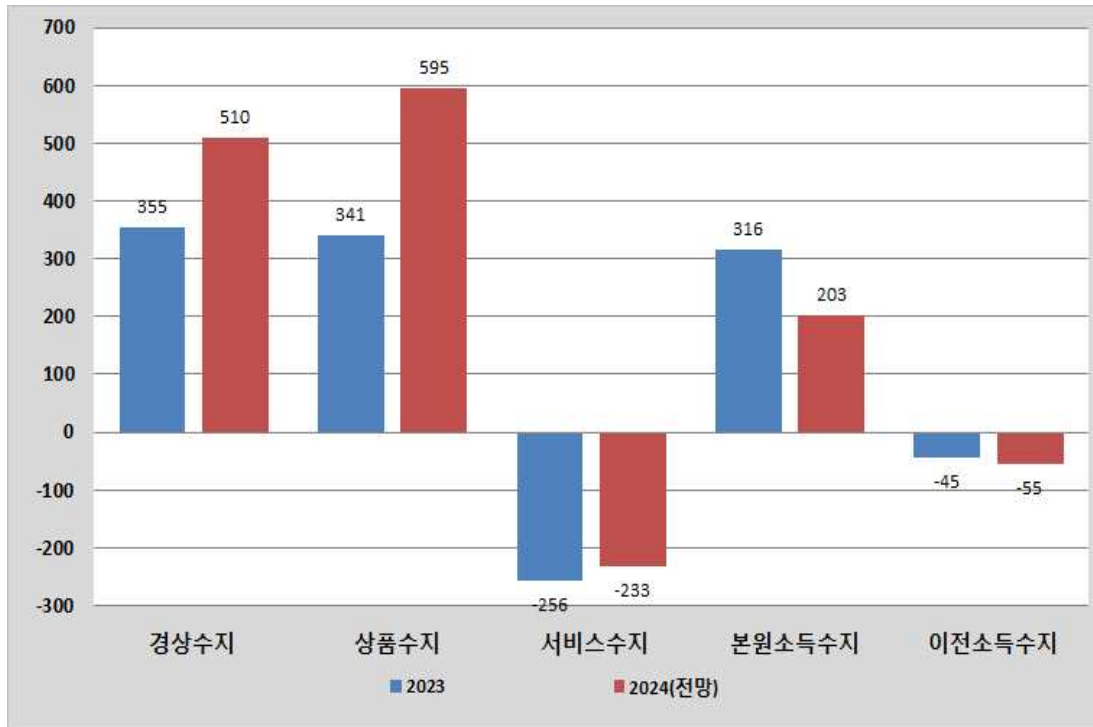
## (2) 경상수지

□ 경상수지: 510억달러 흑자 (상반183, 하반327)

- 상품수지 개선에 따라 전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510억달러로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전망

<그림 II-22> 경상수지 항목별 전망

(단위: 억달러)



자료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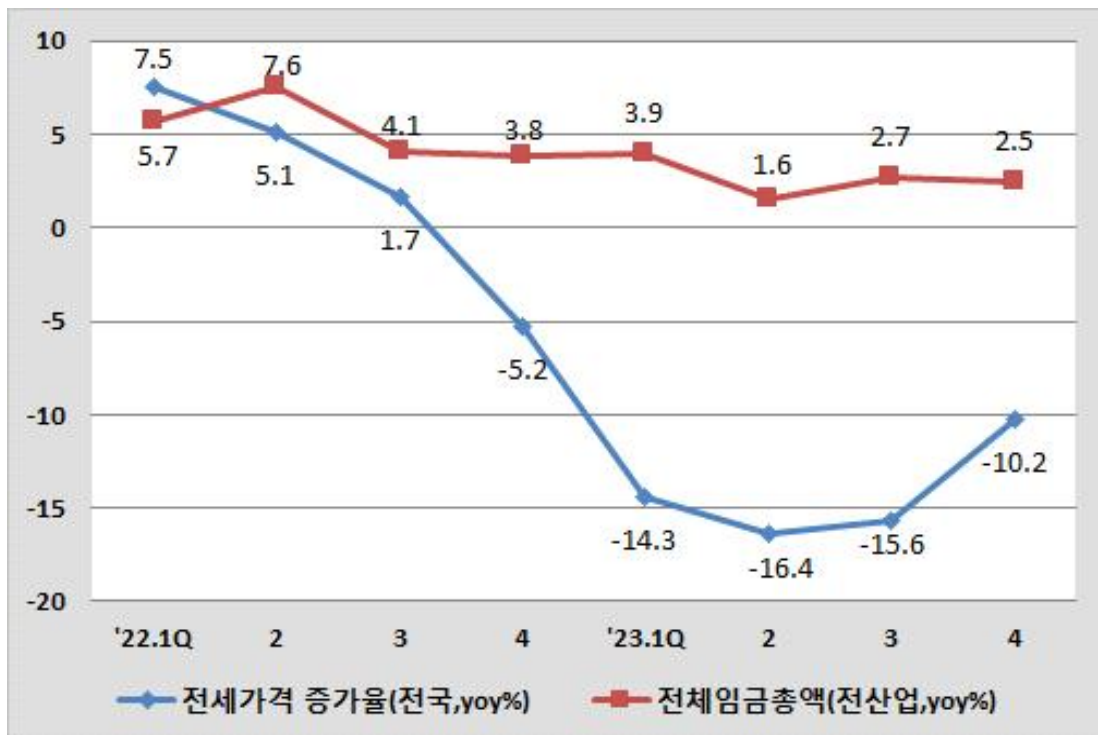
### (3) 물가

□ 소비자물가 : 2.5% (상반2.6 하반2.4)

- 물가는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상반기를 경과하며 점차 안정을 되찾고, 강달러 현상 역시 완화하게 됨에 따라 2% 중반 수준을 보이며 안정화될 전망
- 다만, 원자재 수급불안 우려와 기후변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세 지속은 물가안정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

<그림 II-23> 전세가격, 임금총액

(단위: %)



<그림 II-24> 수입물가, 기대인플레이션율

(단위: 전년동기비 %)



자료: 한국은행, 통계청

## 2024 국내경제전망

(단위: 전년동기대비(%), 억달러(국제수지부문))

	2022년	2023년			2024년		
	연간	상반	하반	연간	상반	하반	연간
GDP	2.6	0.9	1.8	1.4	2.2	1.8	2.0
민간소비	4.1	3.1	0.5	1.8	1.2	2.0	1.6
건설투자	-2.8	1.8	1.0	1.4	-0.6	-2.4	-1.5
설비투자	-0.9	5.3	-4.0	0.5	-1.5	7.5	3.0
지식생산물투자	5.0	2.9	0.3	1.6	4.2	2.6	3.4
수출(상품)	3.6	-0.9	6.6	2.9	4.3	2.8	3.6
수입(상품)	4.3	1.9	-3.0	-0.6	0.9	3.9	2.4
소비자물가	5.1	3.9	3.3	3.6	2.6	2.4	2.5
경상수지(억달러)	258	11	343	355	183	327	510
상품수지(억달러)	156	-34	375	341	245	350	595
서비스수지(억달러)	-73	-123	-133	-256	-105	-128	-233
실업률(%)	2.9	3.0	2.8	2.9	3.2	2.8	3.0